

공군

www.airforce.mi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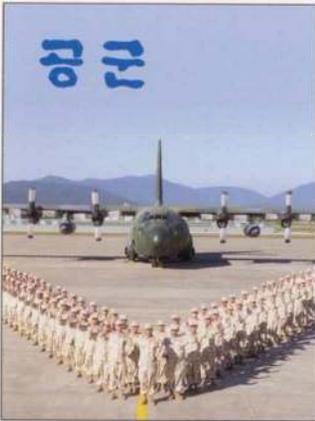
2004. 11 / 제317호

Zoom in / 쿠웨이트로 지원 나가는 다이만 부대
기획특집 / 산꼭대기 부대의 특별한 겨울나기
현장탐방 / 2004 유도탄 사격대회

영문

Contents

제317호 | 2004.11



쿠웨이트로 지원 나가는 다이만 부대



공군소식 1 - 부활호, 復活하다!



기획특집 - 산꼭대기 부대의 특별한 겨울나기



현장탐방 - 2004 유도탄 사격대회

4	참모총장 스케치
6	공군은 지금
	특별기고
10	공군비행훈련, 이렇게 달라졌다
	공군소식 1
14	부활호, 復活하다!
	공군소식 2
16	자격증 왕, 전기공사 기능장에 등극
	공군소식 3
18	공군 병 복무기간 1개월 더 단축
	기획특집
19	산꼭대기 부대의 특별한 겨울나기
	현장탐방
22	2004 유도탄 사격대회
	Zoom In
25	쿠웨이트로 지원 나가는 다이만 부대
	특별기고
28	공군 항공수송단 파병에 부쳐
	화제의 공군인
30	보안용 PC 잠금장치 발명한 김희창 중사
	세계의 항공무기
32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POPEYE (AGM-142)
	세계의 우주력
34	세계가 주목하는 우주강국 중국 II
	테마가 있는 나들이
36	역사와 전통의 고장 안동



그림 이야기	40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법률상식	42
성매매 특별법	
건강 365	44
요통의 예방과 치료	
동아리 마당	46
『가을밤의 축제』, 동아리 발표회를 준비하며	
11월의 공군 약사	48
생활 속의 실천	49
아직도 음식을 남기십니까?	
문화마당	50
11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마음으로 읽는 글	52
약속	
영화 이야기	54
21그램	
책으로 읽는 세상	56
진정한 부	
기상전망대	57
독자의 소리	58
다른 그림 찾기	61
보라매 단상	62
알립니다	63



Zoom In - 쿠웨이트로 지원 나가는 다이만 부대

현재의 공군인 - 보안용 PC작업장치 발명한 김희창 중사

태마가 있는 내들이 - 역사와 전통의 고장 안동

생활 속의 실천 - 아직도 음식을 남기십니까?

영화 이야기 - 21그램



참모총장 스케치



제58항공수송단 파병장병 격려 10월 11일 제58항공수송단 출국 환송식에서 파병장병들과 함께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기원하는 이한호 참모총장



국군의 날, 국립헌충원 참배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은 10월 1일 건군 제5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대전 국립헌충원에서 호국영령 및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한 헌화와 참배를 실시했다.



역대 참모총장 초청행사

공군은 10월 22일 역대 참모총장 16명을 공군본부로 초청, 의장행사 및 정책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다. 사진은 의장행사 후 실시한 기념촬영.



대비태세 점검

이한호 참모총장은 최근 백령도에 위치한 공군부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1 동해에 위치한 공군해양훈련장에서 해상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2 교육사령부는 최근 사령부 연병장에서 각급 지휘관·참모와 장병, 임관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9기 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가졌다.



3

5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제16전투비행단 189 비행교육대대



4

원주 국제군악축제 '따뚜 (TATTOO) 2004'에 참가한 대한민국 공군군악대의 신나는 난타공연

5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활주로에 날아온 새떼를 공포탄으로 쫓아내고 있는 제5전술 공수비행단 BAT(Bird Alert Team) 요원들



6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120cm 항공 불발탄을 제15헌성비행단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7 제18전투비행단은 부대 안에 위치한 국내 최고의 차(茶) 유적지 한송정에서 전국 다도인과 비행단 장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한송정 들차회'를 개최했다.



8 군수사령부가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학프로그램. 양국 장병들이 함께 어울려 대화하며 한국 장병들은 영어를, 미국 장병들은 한국어를 배운다.



9 자매결연을 맺은 부대 인근 보육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10전투비행단 장병들



10 건군 5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제11전투비행단에서 실시한 기지공개행사

11 제8전투비행단은 10월 12일 사병의 날 행사를 갖고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장병들의 화합과 전우애를 다졌다.



공군 비행훈련, 이렇게 달라졌다

“비행교육 전 과정을 수료하면 곧바로 전투 대대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이론과 실재는 다르다’라는 말처럼 지난해까지는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2년여에 걸쳐 3개 기종의 훈련기로 실습·기본·고등비행 교육의 3단계 훈련과 전투능력(CRT)과정을 거쳐 양성된 신규 전투 조종사들은 그동안 전투대대에 배속된 후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전투비행단에서는 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이 예하 전투대대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임무 수행 능력을 보완시켜 왔다. 공군이 지난해 12월, 이한호(李漢鎬) 참모총장의 주재 아래 비행교육 훈련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각 훈련 부대와 교육 기관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당시의 비행 훈련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 향후 최첨단 F-15K 전투기와 국산 T-50 고등훈련기 취역을 앞두고 이를 완벽히 운용할 수 있는 역량있는 조종사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크게 고려됐다.

미래 공군 위한 직접적 투자

워크숍은 올해 6월과 8월에도 개최됐다. 역시 이총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공군사관학교(항공우주연구소)와 3훈련비행단, 1전투비행단 등 조종사 양성 관련 부대, 교육 훈련 관련 공군 본부·사령부급 담당 부서 관계관이 참석했다. 조종사 요원 선발부터 양성과 실제 운용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가진 관련 부대(서)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총장은 ‘조종사 비행교육 훈련은 미래 공군력 건설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라는 명제 아래 비행교육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교관 조종사 중심에서 ‘학생 조종사는 할 수 있다’는 학생 중심의





육과 공중기동 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 단독비행 시기를 기존보다 6회 이상 단축하고 지상의 지시에 대한 즉각 반응 훈련을 3배수 이상 증가하는 등 훈련을 크게 강화했다.

3훈비에서 실시하는 기본비행 교육과정의 경우는 학생 조종사가 교관 조종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비행하는 초단독 비행 시기를

진취적인 사고로 전향, 실습 과정에서 작전 가능 과정까지 연계된 교육 체계 구현 등을 강조했다.

워크숍을 통해 기존 비행교육 훈련 체계의 단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30년간 훈련의 교과과정 개선은 훈련 체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다. ▲비행교육 훈련 체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잦았으며 조종사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태율만 고려한 훈련이 시행됐다. ▲최초 비행교육 입과 인원의 50% 수준으로 조종사를 양성해 비경제적이었다. ▲연간 양성 인원 목표만 우선 달성하기 위해 항공기와 무기 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한 상태로 비행하여, '요령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왔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워크숍을 통해 수립된 제안에 따라 공군의 비행교육훈련 목표는 실습-기본-고등기 과정과 전투 임무가능훈련(CRT)과정의 종료시에,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각 과정의 훈련 단계별로 도달 수준을 재설정했다.

강화된 훈련에 열의는 더 높다

항공실습과정의 경우 학생 조종사는 T-41B (내년부터 T-103으로 교체)훈련기를 정조종석에서 직접 조종하는 가운데, 이착

크게 앞당긴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초단독 비행이란 운전 주행 교습자가 처음으로 혼자 시내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는 학생 조종사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교관으로부터 비행 기량을 인정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 훈련 과정의 중요한 단계에 속하는 과목이다.

3훈비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국산 KT-1기를 훈련기로 운용(T-37기는 지난해 말 퇴역)하면서 처음에는 초단독 비행을 T-37기와 같은 30회째 비행으로 실시했으나, 차츰 그 횟수를 줄여 나갔다. 이는 뛰어난 KT-1기의 성능과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지상 모의비행 훈련이 크게 작용하여 초단독 비행 시기를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또, 교육 진행도 '몇 회째' 식으로 일괄 적용한 과거와는 달리 개인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여, 능력 우수자는 초단독 비행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결과, 대다수 학생 조종사가 기준 시기 내에 초단독 비행을 훌륭히 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 29.1회에서 2002년 22.8회로 준 것이 올해 들어 16회 이내로 단축된 것이다. 당초 '목표 수준 도달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이로써 말끔히 해결하게 된 것이다.

초단독 비행의 조기 달성은 편대비행 훈련의 내실을 다지는 등 다른 비행 기술을 보다 알차게 익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편대는 리더(leader)와 요기로 나뉜다. 리더는 이륙 후 임무 지역에 진입, 임무종료 후 귀환시까지 전반적인 임무계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반면,

요기는 오로지 리더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고, 제한적으로 리더와 협조하며 임무를 진행한다. 종전 기본비행 교육과정에서는 편대의 리더는 교관만이 담당했으나, 교육 개선안에 따라 학생 조종사도 리더를 담당, 비상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했다.

3훈비 외의 다른 비행단으로 전개 훈련도 1.5배 증가했다. 약기상에 놓였을 때 비행 중인 인근 기지로 긴급 착륙할 수 있는 비상 훈련이 필

요하다는 지적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적응 훈련은 각 전투비행단에 배속된 후에야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

맛보기 식의 야간비행은 그만!

고등비행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시에, 평가에 따라 전투기와 수송기·헬기 등으로 조종사를 분류한다. 이 과정에서도 훈련기에 대한 초단독 비행 시기를 12회 이상 단축·적용하고 있으며 역시 개인별 능력에 따른 차등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고등계기 훈련 횟수도 증가됐으며 비행 전 지상 학술 교육이 1주 증가됐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야간비행 분야. 야간비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간에는 조종사의 눈으로 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 계기에 의존하게 되고, 때문에 비행 착각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비행교육 체계 전 과정에서 야간비행 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비행 교육과정에서는 야간비행이 맛보기 식이었다. 일몰 30분 이전에 이륙, 30~40분 비행 후 착륙함으로써 어둠 속에서의 비행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야간 단독 능력 평가 항목이 신설되어 현재는 일몰 30분 후 이륙하고 있다. 이것은 고등비행 교육과정에 와서 보다 세어졌다. 수료시 평가에 따라 전투기와 지원기(수송기·헬기 등) 조종사로 분류되는 이 과정에서 야간 비행 평가 결과는 수료 성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마찬가지로 야간비행 역시 개인별 차등화 교육이 실시되어, 야간비행 기량 미달자는 추가로 탑승, 기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조종사의 전투임무 능력 향상

전투 조종사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인 전투 임무 가능 훈련(CRT)에서는 단좌 과목의 집중 운영 지침과 함께 야간과 악기상에 대비한 훈련을 증가하면서 야간 비행 단좌 과목을 신설, 심야 단독 비행으로 야간비행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심어 주고 있다.

CRT과정에서는 특히, 전술 임무(공대공) 분야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단독 비행 사격 과목의 경우 횡수를 올 초 1회 추가해 공중 사격의 명중률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8월의 워크숍에서는 이 과목의 횡수를 더 늘렸다. 또 공대지 사격 훈련에서도 실제 투하 훈련 횡수를 늘리고 단좌 비행의 저고도 침투 공격 훈련을 신설했다.

적성 검사 및 체력기준 상향조정

조종사의 자질을 점검·선발하는 조종 적성 검사·평가도 달라졌다. 공군사관생도와 일반 대학 출신의 사관후보생 등으로 조종사를 선발하는 공군은 이들에 대해 사전 적성검사를 실시, 비행 의지는 있으나 적성이 맞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 다른 분야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계기판독·기계원리·수표해독 등 지필 검사와 T-37 시뮬레이터를 통해 기본 비행 능력을 검사한 결과, 조종사 지원자 가운데 11%가 불합격했다. 한편, 학생 조종사의 체력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일반 체력 평가와 근력 평가로 구분되는 체력 평가는 국방부 기준 장병 체력 평가 4급을 적용해 왔으나, 이제 학생 조종사는 1급, 기성 조종사는 2급을 유지해야 한다.

개혁은 계속된다!

공군의 조종사 교육 훈련은 이렇게 확 달라졌

다. 기본 과정의 경우 2002~2003년 평균 수료율이 71.2%였으나 개선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을 받은 올 05-1기는 5.9% 증가한 77.1%가 수료하는 결과를 얻었다. 전투력 향상과 직결되는 교육 체계의 개선은 공군 내부에서조차 혁명적으로 평가될 만큼 강도가 무척 높아진 것이다.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론은 이미 고개를 숙였으며, 어느 누구도 향후 얻게 될 성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군 전 구성원이 '공군의 미래와 후배를 위해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탈피, 좋은 교육의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참모총장의 지론에 모두 공감하고 있고 또, 모두 한마음으로 열의를 쏟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군은 현재의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은 반기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개선된 교육 훈련 체계에 따라 각 전투 비행단·전투비행대대의 전술훈련도 연계선상에서 종합적으로 개선할 예정

이다. 향후 워크숍을 통해 단독 비행, 계기 비행, 야간 비행, 비정상 상황에서의 비행 등 실질적 비행 훈련 역시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①





부활호, 復活하다!

10월 22일, 반세기만에 원래 모습을 찾은 '부활호'가 힘찬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제81항공정비창 주기장을 벗어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가 새롭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국내 1호 항공기 부활

'부활호'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동력비행기이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지 50년만에 우리도 항공기를 만든 것이다. 1953년, 항공기 설계 제작을 위한 실습용 및 연습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군은 정비사를 양성하는 공군 기술학교의 교관을 중심으로 동년 6월 제작에 착수했다. 27명의 제작팀은 사천기지 자재창고의 허름한 막사에서 설계도를 그렸고, 부족한 자재는 직접 발품을 팔아 구했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부품은 미 공군기지를 샅샅이 뒤져 모았다. 그결과, 같은해 10월 11일 사천기지에서 기폭 12.7m, 기장 6.6m를 가진 2인용 경비행기 '부활호'가 시험비행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휘호

4개월만에 우리 손으로 비행기를 제작했다는 사실에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은 놀라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전쟁으로 피폐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희망을 주기 위하여 '復活'이라는 붓글씨를 직접 하사하고, 1954년 4월 3일 함태영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復活'의 제호를 다는 명명식을 가졌다.

역사속으로 사라진 부활호

'부활호'는 1955년까지 연락기와 연습기로 활용되었으며, 이후 한국항공대학(대구 달서구, 경상공업고등학교의 전신)에 기증되어 1960년까지 학생들의 연습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민간에게 인계된 후 '부활호'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았고, 더욱이 그 자리에 경상공고가 들어선 후 지하창고로 옮겨지게 되면서 '부활호'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다.

"부활호를 찾습니다"

'부활호'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



이다. 1953년 당시 부활호의 제작을 직접 이끌었던 이원복씨와 故문용호씨. 그들이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부활호'를 직접 찾아 나서게 된 것은 1990년, 미 공군에서 시험평가를 위해 미국 본토로 옮겼다는 풍문을 듣게 되면서부터이다. '우리 항공기를 되찾겠다'고 결심한 이씨는 미 공군과 항공기 제작사에 수 차례 문의를 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 한 일간지에 '부활호를 찾습니다'라는 기사를 내었고, 이를 본 경상공업고등학교의 퇴직자가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된 것. 결국 이씨는 문씨와 함께 올해 1월 13일 학교 지하창고에서 먼지 속에 묻혀 있던 '부활호'의 뼈대를 찾아냈다. 하지만 발견 당시, 부활호는 날개나 엔진, 프로펠러 등 주요 부품 없이 녹슨 뼈대만이 남아있어 일반인들은 이것이 정말 '부활호'였는지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이에 공군은 50여년 전에 우리의 항공기 제작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작 당시 '부활호'가 국민들에게 자주 국방의 희망을 주었던 의미 깊은 유산이라는 점에서 복원을 결정하였다.

힘난한 부활호의 복원과정

공군은 경상공고와 회수를 협의한 후, 제81항공정비창의 전문 요원들로 복원 전담팀을 발족시켰다. 복원팀은 53년 당시 부활의 제작팀 인원수와 동일하게 27명으로 구성하였다. 복원팀은 먼저 뼈대의 녹을 깨끗이 제거한 후, X-Ray 촬영으로 균열 상태를 확인했다. 설계도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골의 수치를 재어서 항공기 각 부품의 크기, 두께 등을 일일이 계산해 나가는 역설계 방식을 사용했다. 이씨와 문씨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한편, 자료 사진으로 형상을 구체화시켰다. 새로 그린 설계도만 200여

장. 그러나 공군은 항공기 부품 수입사와 미국 거주자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중고시장까지 뒤졌지만 당시 엔진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인터넷으로 수입 업체를 조회하여 한 군데씩 연락을 시도한 끝에, 유사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서동화(徐東和, 51세)씨와 연결이 되었고 서씨로부터 올해 7월 엔진을 기증을 받았다.

부활호의 부활을 끝내 보지 못하고...

엔진획득으로 힘을 얻은 복원팀은 각 부품 제작을 완성하기 전에 미리 종이로 모형을 만든 후, 실험과 검증을 거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계 대신 망치로 알루미늄을 두드리는 전통식 타출방식을 고집했으며, 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70m의 천(우포)의 방수 및 탄성처리(Doping), 재단, 부착까지도 모두 손으로만 작업했다. 그러나 이원복씨와 함께 '부활호'의 발굴과 복원작업을 위해 여든에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작업 현장을 수시로 오갔던 문용호씨가 완전 복원을 보지 못하고 9월 8일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故문용호씨는 복원식 하루 전인 10월 21일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감격의 순간을 재현하다

9월 22일, 군수사령부에서 다시 생명을 찾아 활주하는 '부활호'를 지켜본 이원복씨는 "부활호가 첫 비행할 때의 감격이 생생하다", "복원작업의 성공으로 이미 반세기전 항공기를 제작했던 우리의 훌륭한 항공 역사가 사장되지 않아 기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부활호는 KT-1기와 나란히 지상 활주함으로써 반세기의 역사가 만나는 뜻깊은 시간도 만들었다.Ⓜ

원고정리 편집실

1953년 당시 부활호의 모습



40여 년 만에 발견된 부활호



부활호 조종사 민영력(예)대령(左)과 설계자 이원복(예)대령





제30방공관제단 오기석 하사

자격증 왕, 전기공사 기능장에 등극

현재 10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군하사가 전기실무 분야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전기공사 기능장' 까지 취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공군 제30방공관제단 소속의 오기석(吳基錫, 30세) 하사.

보유한 자격증만 총 11개

현재 오기석 하사가 가지고 있는 전기관련 자격증은 전기공사 기능사, 전기기기 기능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전기 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전기공사 기사, 전기 기사, 소방설비 기사, 산업안전 기사 등 10개 자격증과 이번에 취득한 '전기공사 기능장' 을 더해 총 11개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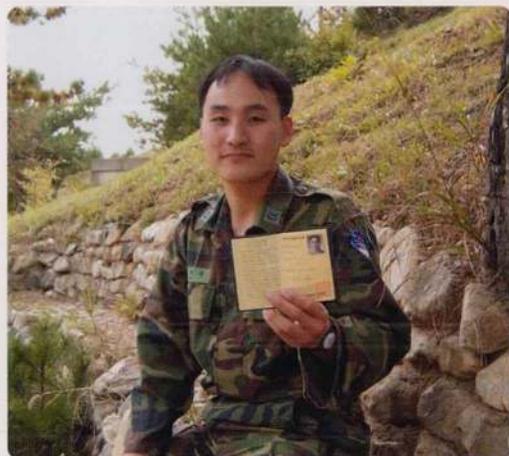
전기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

전기공사 기능장은 전기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장인의 기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된다. 때문에 전기공사 기능장을 취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관련 업무에 수년 혹은 수십년간 일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 올 한해 동안 전기공사 기능장에 합격한 사람은 전국을 통틀

어서 51명뿐이며, 지금까지 현역 공군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기석 하사만이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기공사 기능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의 실무, 기능사 취득 후 8년 이상의 실무, 또한 1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중 하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만큼 전기공사 기능장이 되기 위한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다.

주경아독의 결심

하지만 오기석 하사가 주위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가진 다른 10개의 자격증이나, '전기공사 기능장'이라는 명에 때문만은 아니다.

오 하사는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다니던 '98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1학년도 채 마치지 못하고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공군에 입대한 오기석 하사는 시설 특기를 받고 발전실에서 근무하며, 업무와 관련있는 전기 분야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퇴근 후와 여가 시간에는 언제나 전공서적과 씨름하며 보냈다. 일과 중 틈틈이 생기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들었다.

오기석 하사는 수상소감을 "지금 맡고 있는 주 임무를 완수하려면 내 일을 완벽히 알아야만 하고, 그러려면 내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 임무가 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에, 전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리라 마음먹었다.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하나 둘씩 따기 시작하다 보니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당시에는 좌절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전문 기술인으로서, 공군을 대표하여 공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몫 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라고 말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기 위하여 업무에 매진하였고, 공부하였으며, 그로 인해 얻은 결실이기 때문에, 현재 오 하사가 가진 총 11개의 자격증들은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다.

외부 강사로도 초청

현재, 오기석 하사는 전기와 관련된 외부 민간 업체에서 강사로 초청하는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전기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기능장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현재 그는 건축전기 기술사에 도전하고 있다. 오기석 하사는 "건축전기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 동안 집안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던 학업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 또, 평소 관심이 많은 전산이나 통신 분야도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원고정리 편집실



공군 병 복무기간 1개월 더 단축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지난 2003년 10월, 30개월이던 공군 병 복무기간이 28개월로 줄어든 데에 이어서, 오는 11월부터는 여기서 1개월 더 줄어든 27개월이 된다. 국방부는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28개월인 공군 병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오는 11월 15일에 입대하는 공군 병 618기부터는 27개월간만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

보다 뛰어난 병사를 모집하기 위한 방안

이번에 공군 병 복무기간을 줄인 것은, 그동안 공군 병사 획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뛰어난 병사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3군의 복무기간을 비교해 보면,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에 비해 공군의 복무 기간은 28개월이었다. 몇 개월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공군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군 병 지원율이 계속 하락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1990년대 이전 평균 지원율이 2.3:1 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그 지원율이 계속 떨어져 평균 0.9:1로 오히려 인원 과부족 현상이 발생되었다.

군 복무의 가장 큰 고려요소가 '복무기간'

공군 복무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전공을 반영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병사들은 대학 시절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특기를 부여받아 복무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의 2004년 조사결과 군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복무기간'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2년간

만 군생활을 하면 된다는 점이 지원자들에게는 더욱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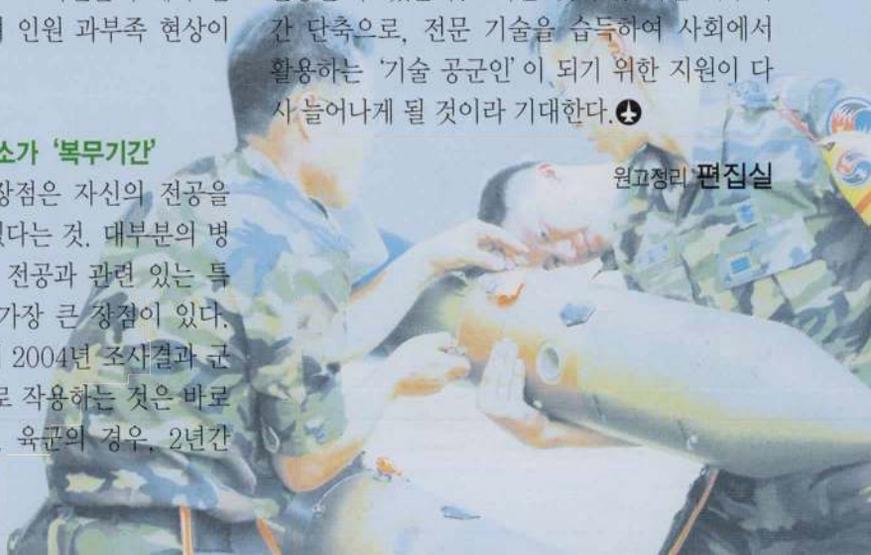
3군의 생활 수준이 비슷해진 것도 주요 원인

과거 3군의 복무기간이 비슷할 당시에는 공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었다. 타군에 비해 공군 부대는 상대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기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공군의 특성상, 생활 여건이 타군보다 나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복지생활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현재는 생활 여건이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때문에, 대학생이 대부분인 공군 지원자들에게는 휴학 기간을 결정하는 복무기간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 것이었다.

복무기간보다 더 중요한 고려요소

군을 선택할 때 복무기간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복무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에서 배운 지식을 전역 후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문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에서 활용하는 '기술 공군인'이 되기 위한 지원이 다 사들여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원고정리 편집실



산꼭대기 부대의 특별한 겨울나기



하늘을 24시간 감시하는 방공관제대대. 관제대대는 대부분이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평지에 위치한 부대보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또 유난히 겨울이 길기 마련이다. 11월이면 벌써 첫 눈이 내린지도 오래. 이른바 '산신령 부대'로 통하는 이들 부대에는 벌써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월동 준비? 벌써 마친 지 오래

10월에 접어들면, 이들 '산신령 대대' 들은 월동준비에 한창이다.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야 한창 단풍놀이에 빠져있을 시기겠지만, 이곳의 대대원들은 9월부터 월동 준비에 들어가 곧 다가올 긴 겨울동안 '생존'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비에 한창이다. 빠른 곳은 이미 지난 10월 14일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니, 이들에게 11월은 이미 추운 겨울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폭설이 내려도 레이더는 멈추지 않는다

전국의 각 고지에 위치한 관제부대들. 겨울이 긴 만큼 눈도 많이 내리고, 내린 눈은 잘 녹지도 않는다. 이곳의 적설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 겨울 평균 적설량은 수백 mm에 달하며, 가장 추운 1월 ~ 2월의 경우 600mm ~ 800mm에 달하는 눈이 내리는 부대도 있다. 긴 겨울, 10월에 시작된 눈은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진다.(실제 올 4월 말에도 547mm의 폭설이 내린 부대가 있다.)



창문 바람막이 설치



수도관 동파 방지작업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관제중대의 경우 밤새 눈이 내려서 근무지까지 삼으로 눈을 치워가며 길을 만들어 이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때로는 눈이 숙소 출입문까지



보일러 점검



체인 장착 연습



겨울을 나기 위해 비축해 둔 난방유



소화기 점검



난간에 새끼줄 감기

썰여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조차 힘이 든 경우도 있다.

또, 산 속 관제부대는 겨울이 긴 만큼 추위도 매섭다. -20°C 에 달하는 추운 날씨와 거센 바람으로 장병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온도는 -30°C 에 달한다고 하니 그 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폭설이 내렸다고 해서, 살을 에이는 추위가 불어닥친다고 해서 본연의 주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 이런 곳에서 '생존' 하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해결책은 오직 철저한 사전 준비밖에 없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기에, 이곳 대대의 장병들이 24시간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겨울나기의 필수 항목들

겨울에 접어들면 장병들에게 '완전무장'을 할 방한 장구들이 지급된다. 방한모, 목도리, 방한파카, 방한바지, 병어리장갑, 목도리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쌀 수 있는 두툼한 겨울옷이 지급되면, 첫 겨울을 맞는 신참들에게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몰래 입어보고 마냥 즐거워만 하는 이들을 보며, 고참들은 가만히 웃을 뿐이다.

또한 폭설로 인한 고립 상황에 대비하여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겨울철 화재에 대비한 각종 소방장비 점검 역시 빠질 수 없다.

구석구석 완벽한 월동준비

장병들만 겨울옷을 입는 건 아니다. 부대 내에 있는 각종 철제 난간과 계단에는 새끼줄을 단단히 동여맨다. 추운 겨울에 철로 된 난간에 맨손이 닿으면 달라붙어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 때문에, 장병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부대에 손이 닿을 만한 쇠붙이에는 모두 새끼줄을 동여맨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병들의 생활용수로 쓰일 수도관에는 단열재를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경계초소 및 사무실 창문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창을 통한 열손실을 막는다.

가장 중요한 보일러 점검!

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일등공신은 당연히 난방장비. 이렇게 추운 산 속에서 한밤중에 보일러가 고장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추운 겨울 대대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형사고'에 가깝다. 전 대대원들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져야 할 시설반 요원들은 보일러의 완벽한 작동만이



장병들이 긴 겨울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난방장비의 정상작동은 물론이고 연료관, 급수관 등등 추위에 터지기 쉬운 부분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이다.

폭설에도 출근은 한다!

산꼭대기 부대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인 작전 도로의 확보 또한 필수적인 일이다. 좁은 산길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기 때문. 따라서 내리는 눈이 쌓일 틈도 없이 재빨리 치우는 것이 관건이다. 초가을부터 제설작업을 위한 각종 중장비 점검은 물론이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정확한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전 부대원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때문에 사전에 월동용 체인을 꺼내 고장난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새로 전입 온 신병들에게는 동계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 폭설에도 부대원들이 무사히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체인을 장착하고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작전도로 제설을 위해 불도저까지

동원하는데, 부대까지 올라오는 데만 평균 서너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래도 출근을 하지 못한 적은 없다고 하니, 부대원들의 책임감 또한 대단하다.

10년째를 맞이하는 눈썰매대회



혹한과 폭설이 이어지는 산 속 관제부대의 겨울이지만 여기에도 낭만은 있다. 8785부대의 경우, 부대의 지리적 특성이 눈썰매를 타기에 적합하여 매년 눈썰매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로 이미 10년째를 맞는다고 한다. 때문에, 이곳 장병들은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 추운 겨울, 날씨 탓에 야외 운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체련의 날 등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장병들은 눈썰매를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눈썰매장. 이 역시 미리미리 철저한 겨울나기를 준비한 장병들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

공군본부 중위 정연석

물샬틈없는 조국 영공, 우리가 있는 한 이상 없다

- 2004 유도탄 사격대회 -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서해바다는 조용하고 잠잠하기만 하다. 햇빛이 반사되어 바다는 온통 은빛으로 수를 놓은 듯하다.

10월 12일, 평온하던 대전 앞바다가 술렁거린다. 사이렌 취명과 함께 전투대기 돌입지시가 떨어진다. 방공통제 명령과 함께 스피커에서는 사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려온다. 공습경보가 발령됨과 동시에 사격장 발사지역에서는 사격요원들이 수초 안에 호크 발사대 무장을 실시한다.

동시에 사격훈련장 주변 해안가를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는 초병의 눈빛에도 긴장이 감돈다. 유명한 관광지에 사격장이 위치하다 보니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때문에 한 순간도 경계의 임무를 게을리 할 수 없다.

한편 사격장 끝에서는 호크 사격에 앞서 표적기를 이륙시키기 위해 발사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처음 사격을 관람하는 사람은 미사일로 착각할 정도로 표적기는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먼저 표적기가 발사되어 수십km를 날아간 후 견인표적을 분리하면 작전요원의 레이더 스크오프에 이상 항적을 표시하는 하얀 점이 점멸되기 시작한다. 피아식별기를 통해 적기를 식별한 통제요원은 사격반에 표적을 할당한다. 속도와 거리, 고도, 시간 정보가 확인되고, 통제소에서는 계속 항적을 추적하며, 사격요원들은 발사대에서 발사 순간만을 기다리며 숨을 고른다.



재블린 미사일 발사장면

“발사 전 3, 2, 1 발사!!”

발사명령이 떨어지고 동시에 사격장 전체가 진동한다. 모래사장을 뒤엎을 정도의 화염을 내뿜으며 호크 미사일은 표적을 향해 서쪽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른다. 관람석 및 통제탑에서는 탄성과 박수, 함성소리가 들려온다. 모두가 들떠있지만 통제소 요원들은 아직 스크린 속에 나타나는 유도탄의 행로만을 주시한다.

“사격통제병 폭파음 청취! 적기 명중!”이라는 사격통제병의 힘찬 목소리가 들리고 유도탄은 표적과 함께 스크오프상에서 사라진다. 격추 성공을 축하하며 외치는 구호소리와 함께 박수가 이어진다.

호크미사일의 힘찬 비상과 함께 2004 유도탄 사격대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대회는

공군 방공포병의 전투기량을 종합평가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서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 방공포병이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실사격이 실시되었다.

사격대회는 방공포병사령부의 일년의 모든 작전 및 훈련 등을 평가하는 자리이다. 대회 당일은 대표부대만 사격을 실시하고, 실탄사격에 참가하지 않는 작전부대는 실제 사격부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둔지 작전지역에서 진지점령, 장비설치, 전투준비태세 등을 평가받는다.



표적용 무인제트기 - VSTT

국내 유일의 무인제트기 - VSTT

이번에 실시된 유도탄 사격대회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공군에서 유일하게 운용되고 있는 무인제트기 VSTT이다. VSTT는 Variable Speed Training Target의 약자로서, 즉 유도탄 사격시 사용되는 표적제 공용 무인표적기란 뜻이다. 무인표적기는 1년에 한 번, 유도탄 사격대회가 실시될 때 딱 1회의 비행을 실시한다. 사격대회 당일 단 한 번의 비행이 그 동안의 준비과정 및 훈련내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조종사의 실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더욱 정밀한 손길이 요구된다. 게다가 비행체 자체가 타기종에 비해 월등히 작아 바람 등의 기상요소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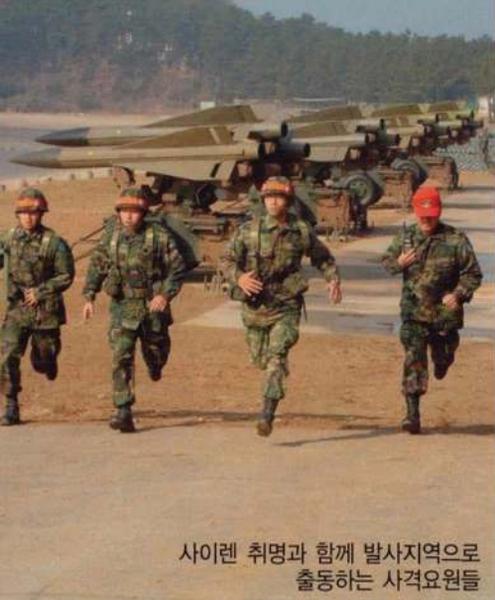
조종사 탑승이 아닌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 조종하기 때문에 고도 및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일반 비행보다 훨씬 힘들다. '인간의 능력과 기계의 성능의 조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성공적인 무인표적기의 비행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의 최대성능발휘와 동시에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무인표적기를 운용하는 통제요원들의 임무이며 이들의 노력이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함께 준비하는 유도탄 사격대회

유도탄 사격대회의 주인공은 사격요원들이 아니다. 사격요원들이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만만치 않다. 유도탄 발사 전 이륙하는 모의 표적기의 조종사도 사격요원 못지 않게 중요한 임무를 갖는다. 보통 전투기든 수송기든 비행기를 직접 모는 사람만 조종사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통제실에서 모의기를 조종하는 사람도 조종사라고 한다.

그리고 사격장 인근 해역의 선박을 통제하는 레이더 관제요원의 임무도 중요하다. 사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어선들이 사격장 인근으로 온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제요원들은 레이더를 통해 인근 어선들의 움직임을 철세없이 체크한다. 이 과정은 군관계자뿐 아니라 인근지역 해양경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먹거리를 담당하는 취사담당 장병들. 사격지원 못지 않은 큰 임무가 바로 사격대회에 참가하러 온 인원들에 대한 속식제공이다. 각지에 근무하던 수많은 장병들이 이곳 사격장으로 한꺼번에 전개하면, 한끼 한끼의 식사준비 자체가 만만치 않은 작전(?)이 되어 버리기 때문. 취사반에서 만난 한 장병은 "비록 레이더 스크프나 미사일 발사버튼과는 거리가 먼 취사병이지만, 우리들



사이렌 취명과 함께 발사지역으로 출동하는 사격요원들



호크미사일 발사장면

의 임무 역시 성공적인 사격대회를 위선 꼭 필요한 겁니다.”라고 딱 부러진 대답을 한다.

또, 이곳 사격지원대는 여름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사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무 특성상 소음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역시 무척 중요하다. 사격지원대는 평소 의료지원, 일손돕기 등의 대민지원은 물론, 부대 개방행사를 비롯한 각종 친선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사격대회에도 인근 지역 관계자 및 주민들을 부대로 초청, 대회관람과 부대견학, 오찬 등을 실시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민·관·군 화합행사를 가졌다.

이와 같이 사격요원, 무인표적기 조종사, 정비요원 등 우리 장병뿐 아니라 관공서 근무자, 인근 지역주민 등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모여, 올해도 방공포병사령부 최고의 행사인 유도탄 사격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길고 긴 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된 2004년 유도탄 사격대회, 대회에 참가한 방공포 장병들의 눈빛에서는 완벽한 영공수호에 대한 자신감과 필사즉생의 신념이 빛났다. 그들의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에서 언제, 어떠한 조건이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방공포병의 준비된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방공포병사령부 중위 이 선 미



큰 뜻 큰 날개 평화를 위해

쿠웨이트로 지원 나가는 **다이만** 부대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지난 12일 작은 아버지인 서영철 원사와 쿠웨이트로 떠난 서남섭 대위의 말이다. 그리고 우리 공군항공수송단 전 대원들. 단장인 강대희 대령을 비롯한 모두가 여유로운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라크의 평화, 그리고 재건을 위해 파병되는 다이만 부대.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 부대 지원을 주임무로 C-130 수송기 4대에 자랑스런 대원들과 물자,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기상을 수송하게 된다. 준비된 사람들의 이야기, 쿠웨이트로 떠나기 전 마지막 점검에 땀흘리고 있는 다이만 부대를 만나고 왔다.

최정에 요원과 임시 본부

부대에서 처음으로 들른 곳은 임시 본부. 30여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노트북으로 마지막 작업에 한창이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본부의 문턱을 넘나

들며 끊임없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음료수들이 보기 좋게 쌓여 있었다.

임시 본부 밖에서는 비행대대와 정비대대 등이 각자 맡은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머리칼을 날리는 가을인데도 부대 안의 사람들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있는 조국의 품을 떠나 열사의 땅 쿠웨이트로 떠날 날이 왔다.

지난 8월 30일 부대를 창설한 지 43일만의 일이다. 물론 올해 초부터 보다 정확한 작전수행을 위한 현지답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선발된 대원들에 대한 현지 적응교육 등 부대 창설 이전에도 대원들은 조금도 쉴 틈이 없었다.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력과 동기가 충분히 심사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만 부대의 최정에 요원과 작전본부가 쿠웨이트에 등지를 든다. 높이 날고 멀리 보는 독수리의 기상으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는 대원들에게 가을은, 열정 그 시작의 계절일 뿐이다.



출국 전 참모회의를 통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아름다운 얼굴, 쿠웨이트에 공군을 심고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쿠웨이트에 왜 지원하게 됐는지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그들의 시선엔 참 배울 점이 많았다. 군인정신과 바른 용기로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쿠웨이트에 대한민국 공군을 심는다.

먼저 앞서 언급한 기상장교 서남섭 대위이다. 기상은 육군과 해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분야로 쿠웨이트에서 서 대위는 미군의 과학적 정보에 경험을 더해 하루하루를 이야기하게 된다. 모두를 감싸고 있는 포근한 대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서 대위의 쿠웨이트 지원은 가족 모두가 공군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미 서 대위는 작은 아버지 서영철 원사와 동시에 다이만 부대원으로 선발돼 화제가

되었던 인물. 알고 보니 서 대위의 아버지와 삼촌 등 집안 남자들 모두도 공군인이라고 한다.

다음은 임종은 정비대장이다. 사막 지대인 쿠웨이트에서도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긴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아버지. 비행을 전후로 두 시간 먼저 일어나 두 시간 늦게 취침을 하는 정비대원들을 위해 현지에서 YTN과 아리랑 채널을 감상할 수 있도록 TV를 건의하는 등 대원들의 작은 일상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게다가 대원 모두가 정비분야에 있어서 공군 최고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비행기는 그 육중한 몸체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얼굴은 바로 고석목 참모장이다. 걸프전을 비롯해 이미 해외 파병 근무만 3회째인 이 분은 노련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대원들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었다. “해외파병이란 아주 힘든 겁니다. 새로이 부대를 창설해야 하고, 파병지의 기후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고, 장병들의 건강관리에서부터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우리의 임무들은 완벽히 수행해 나가야 하구요. 그래서 이번엔 선발된 다이만 부대 대원들은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베테랑들입니다. 게다가 단장님을 비롯한 상당수의 대원들은 이미 아프간전을



비롯한 해외파병 경험까지 가지고 있죠. 완벽한 준비와 우수한 대원들... 현지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큰 뜻 큰 날개 세계로 미래로

조종사들이 근무하는 비행대대의 입구에 써져 있는 말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업데이트되는 쿠웨이트의 자료들을 가위로 오리고 붙여서 끊임없이 항공 지도를 수정하는 조종사들. 지도에 표시된 실선과 점선들 위에서... 그들의 눈엔 이미 중동의 하늘과 사막, 지평선과 모래바람이 담겨 있었다. 하루 4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비행훈련,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브리핑과 연구활동 속에서도 지친 모습은커녕, 한층 뜨거운 열기로 매진하는 조종사들. 그들의 매섭게 단련된 눈빛과 진지한 모습에서 이미 수많은 항공작전들이 성공을 보장받고 있었다.

열사의 땅, 중동의 하늘로 떠나는 대원들. 많이 힘들 것이다.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옷이 뒤로 밀릴 정도의 바람, 강한 자외선 등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기에 대원들이 근무하게 되는 6개월, 1년, 예정되지 않은 시간들에 너무



“아빠! 잘 다녀오세요!”

나 많은 짐을 안겨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해낼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임무에 열정을 가진 진정한 군인들이기에, 쿠웨이트에서도 이들은 분명 자랑스런 공군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먼 나라에서의 하루하루,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기 전 다시 한번 따뜻한 소식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녹여주기를 기원하며, 다이만 부대의 무사귀환과 활약, 이제 그 서막이 올라간다. ㊦

객원기자 이예진



공군 항공수송단 파병에 부쳐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준희

아주 오래 전 코흘리개 초등학교 시절, 청소시간의 마무리는 언제나 양초를 잔뜩 문지른 복도바닥을 마른 손걸레로 닦아 윤을 내는 일이었다. “시작!” 선생님의 구령과 함께 복도에 줄지어 앉은 꼬마들은 일제히 걸레를 밀고 나가면서 매번 같은 노래를 고래고래 합창해댔다. 희미하게 기억 나는 가사는 이랬다.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맹호’ ‘청룡’ 등 베트남 파병부대들의 노래였다. 얼마전, 신문 1면 중앙을 장식한 공군 제58항공수송단 다이만 부대 환송식 사진을 보면서 문득 그 시절의 추억에 젖었다.

물론 다이만 부대의 파병은 많이 다른 상황이다. 쿠웨이트 기지에 주둔하면서 육군 자이툰 부대의 인원과 물자 공수를 지원하는 임무다.

순간순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극한의 전투상황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다이만 부대원들이 군수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 자이툰 부대의 주 역할이 재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 부대 주둔지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도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상황이라는 점도 한결 마음을 놓게 하는 요인들이다.

완벽한 준비와 경험으로 악조건을 극복한다

그렇더라도 현지는 전쟁지역이므로 예측불허의 위협요소는 상존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들이 한국에 대해 공공연한 테러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쿠웨이트 기지에서 아르빌에 이르는 1,000km의 길고 긴 항로 어디에선가, 또는 아르빌 주변에서 불시의 피습 위험을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 영국 등 다국적군의 지원요청을 받게 될 경우 부대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당장 익숙지 않은 열사의 혹독한 기후조건과 싸워야 한다. 결코 만만한 작전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이미 40년 전부터 베트남, 걸프지역, 소말리아, 동티모르 등지에서 수천 회에 걸친 해외 공중수송 작전을 훌륭하게 완수해낸 역사를 갖고 있다. 늘 자국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미군도 한국 공군의 실력에 대해서는 다른 동맹국들에게와는 달리 한 수 접어 주며 대우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더욱이 지휘관을 비롯한 대원 상당수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넘나들며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작전 지원임무 등을 수행한 베테랑들이다. 우리 공군의 경험과 대원들의 자질, 훈련과 준비태세 등으로 보아 더 이상의 걱정은 기우일 것이다.

다이만 부대의 작전경험이 곧 국가의 귀중한 재산

다이만 부대 환송식을 보며 떠오른 장면 하나 더. 1944년 6월 4일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D데이 모습이다. (물론 어느 영화에선가 본 장면일 테지만) 새벽 칠흑의 상공을 뒤덮은 연합군 수송기들이 버섯 같은 낙하산들을 끝도 없이 쏟아내는 광경이다. 독일군 후방을 교란하고 상륙부대를 엄호하기 위한 공수병과 장비들이었다. 해안으로부터의 상륙은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여명과 함께 함포들이 불을 뿜으며 시작됐다. 역사상 '가장 긴 하루(The longest Day)'는 그렇게 공군 수송전단이 열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능력의 결정적 요소 중의 하나가 군수다. 고대 손자병법에서부터 치중(輜重)의 중요성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거니와, 실제로 고구려의 수당전쟁서부터 스탈린그라드 전투, 롬멜의 아프리카 전투 등 2차 대전의 주요 격전에 이르기까지 보급선의 확보, 차단 여부가 승패를 갈랐다. 현대전에서 군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심지어 '90년 걸프전은 군수전'이라는 전쟁사가들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다양한 악조건을 극복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항공수송단의 경험은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국가 전체의 귀중한 무형의 재산이자 힘이다.

대한의 멋진 기상을 세계에 과시해 줄 것

지난 해 3군 청년 장교들을 집단 인터뷰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화제삼았을 때 그들은 결연히 말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와 국민이 명령하면 따를 뿐이다." 그렇다. 지금도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다이만 부대원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용사들이다. 지금까지 선배들이 그랬듯 이번 다이만 부대원들 모두 우리 공군, 나아가 국가의 대표답게 멋진 기상과 임무수행 능력을 또 한 번 유감없이 과시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누군가 인터넷 사이트에 환송식 후 대원들이 가족, 연인과 작별의 키스를 나누는 사진을 올리고는 "군인의 키스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지 미처 몰랐다."라고 글을 달았다. 전적으로 공감했다. 그리고 젊은 날 이런 장면 한 번 연출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워지면서 은근히 그들이 부러웠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 주기를. (⊕)





보안용 PC 잠금장치 발명한

제18전투비행단 김/희/창 중사

통신대대 전산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창(기고 25기, 28세) 중사. 김희창 중사는 얼마전 열린 비행단 군사보안 경연대회에 키보드와 마우스, USB 포트의 사용을 타인으로부터 제한하는 하드웨어를 제작·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김 중사는 현재 자신이 만든 PC 잠금장치를 특허 출원키로 하였다. 그는 “전산 보안평가 활동을 하면서 비인가자의 컴퓨터 접근을 사전에 통제하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 이와 같은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며 잠금장치를 발명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군인에게 있어서 보안의 유지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군에서는 부대 내 보안유지를 위해 각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항상 화면보호기 암호설정 등으로 타인의 사용을 통제하고, 인터넷의 비밀번호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다소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현역 공군 중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타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장치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개인 보안 책임제에 걸맞는 잠금장치

화제의 주인공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정보

컴퓨터 잠금장치 장착에 드는 비용은 3천원

비행단 군사보안 경연대회의 심사를 맡은 정보처장 조성호 소령은 “김 중사가 고안한 장치는 간단한 구조에 비해 효과적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며, “자료 유출을 막고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심사평을 하였다. 또한, 김 중사가 고안한 발명품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장치들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다는 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문 인식 마우스와 카드인식 키보드 등은 고가의 장비로, 장착 비용이 약 16만원가량 든다. 하지만, 김 중사의 발명품은 컴퓨터 한 대당 제작비가 3,180원에 불과하다.

잠금장치의 비밀

김 중사가 고안한 작품은 보안키로 컴퓨터 마우스나 키보드 USB 포트에 연결된 전원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컴퓨터 주인이 키를 빼면, 어느 누가 와서 컴퓨터를 작동하려 해도 절대 마우스나 키보드를 작동시킬 수 없도록 고안되어 있다. 때문에 부대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요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대대장 김용환 중령은 “김 중사의 이번 발명은 평소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노력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결과”라며, “앞으로 이 하드웨어는 부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자녀들의 과도한 컴퓨터 사용이나, 불건전한 성인 사이트 접속 등을 막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평하였다.

원고정리 편집실

11월의 호국인물

전쟁기념관, 「11월의 호국인물」로 고/광/수 공군대위 선정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중동부전선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운 고광수(공사 1기, 1929.10.15. ~ 1953.7.18.) 공군대위를 2004년 1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고광수 대위는 1929년 10월 15일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사관학교 1기로 졸업, 소위로 임관했으며 정찰비행부대와 교육부대 등에 배속되어 정찰과 후배양성 임무를 수행했다.

전투조종사로 중동부전선에서 활약

1952년 12월, 개전 1년여 만에 단독 출격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등 공군전력이 급속히 증강되던 시기에 강릉 전진기지로 전속된 고광수 중위(당시)는 최고의 기량으로 F-51 전투기 교육을 이수했다. 이후 1953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 고성지역 351고지의 적 동굴 폭파작전에 참가하는 등 휴전직전까지 중동부전선 일대에서 활약, 유엔공군과 함께 대공세를 감행한 적을 분쇄하며 약전고투하던 지상군 작전을 아군에 유리하게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

52회 출격, 조국 하늘에 잠들다

뛰어난 조종술로 51회에 걸쳐 출격하며 적 주력부대를 무력화하는데 큰 공을 세우던 고중위는 1953년 7월 휴전을 눈앞에 두고 52회째 강원도 고성 시변리지구 작전에 출격해 공격하던 중, 적 대공포화에 피탄되었고 항공기를 지키기 위해 조종간을 놓지 않고 귀환하던 중 끝내 동해상에 추락, 전사했다. 그때 그의 나이 스물넷이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1월 4일(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과 공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자료제공 : 전쟁기념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POPEYE (AGM-142)



POPEYE란?

POPEYE는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로서 현대전의 제반 작전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 제작되었고 미 공군 및 이스라엘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Stand-Off(원거리) 미사일이다. 장착 가능한 항공기는 F-4E, F-15C, F-16C, F/A-18, B-52G, F-111F 등이 있다.

개발과정

POPEYE-I은 이스라엘 라파엘사에 의해 1978년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1986년 이후 이스라엘 공군의 F-4 항공기에서 운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 미 공군에서 이 미사일의 기술을 도입, 면허생산하면서 초기에 HAVE NAP이라 명명했다가 이후에 AGM-142로 재명명하였다. POPEYE-II는 F-16 항공기에 장착 운용하기 위하여 전자계통을 재설계하고 로켓모터를 신소재로 바꿔 길이 및 무게를 감소시킨 미사일이다.

장비 구성 및 기능

POPEYE 미사일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 ① 유도부는 TV나 IIR 탐지기를 장착하는데

상시/정밀 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IIR(영상적외선) 탐지기가 요구된다.

② **탄두**는 임무요구에 따라 I-800 관통형 탄두나 표준 파편형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③ **제어부**는 데이터링크를 통해 조종사로부터 조종신호를 받아 최종단계까지 유도하며, 미사일 탐지기에 감지된 영상(TV/IIR)은 조종사 모니터에 시현된다.

④ **추진부**는 사정거리 80km까지 추진력을 제공한다.

주요 성능 및 특징

결프전 이전 사용된 미사일은 발사 전 Lock-on을 하고 발사 후에는 유도가 제한되었고, 병커 같은 견고한 구조물 파괴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기존 공대지 미사일은 적의 대공망 상황하에서 발사해야 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취약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Stand-off 미사일이다. Stand-off 미사일은 강력한 탄두와 60~90km 사정거리를 보유,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발사 및 최종단계 유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서(결프전 이후 나온) 최신에 미사일 중 하나가 바로 POPEYE이다. POPEYE는 전략개념을 도입해 제작된 미사일로서 사정거리가 약 60~90km 정도로 거의 수직으로 표적에 명중되며, 전천후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위치에서도 발사가 가능하여 우회공격이나 PIN POINT(정밀조준) 공격을 할 수 있다. 표적 명중오차는 1m 이내이며, 탄두무게는 770Lbs로서 F-4, F-16에 2발, F-111에는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의 평균 순항 속도는 고도 200피트 이하에서는 마하 0.97, 고고도에서는 마하 1.5 정도이다. 또, POPEYE는 일단 관성유도를 통해 목표지역에 도착한 뒤, 5~7마일 밖에서 표적을 최종확인하고 접근하므로 상대방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즉각 대응한다 해도 미사일 빔폭이 좁아 재밍이 제한된다.

POPEYE 운용

① POPEYE 미사일 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상에서 계통점검 후 미사일과 데이터 링크 포드를 항공기에 장착하고, 표적선정 WAY POINT나 요구되는 자료를 입력시킨다.

② 항공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내부에 내장된 INS(관성항법장치)를 사용하여 자세를 유지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한다.

③ 비행하는 동안 미사일 후미에 부착된 데이터링크는 미사일 탐지기의 영상신호를 발사 항공기에 송신하여 상태를 시현한다.

④ 중간코스를 거쳐 최종단계에 이르면 조종사는 항공기 모니터에 원하는 표적을 확인 후 Lock-on하고, 표적을 확대하여 원하는 부분을 재 Lock-on하여 핵심표적에 미사일이 유도되도록 조치한 뒤, 모든 교신을 끊고 비행항로를 이탈한다.

과거의 전사에서 보듯 Stand-off 무기(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공군은 적의 주요 목표물 파괴를 위해 표적에 근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물적, 인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 공군은 원거리에서 정밀공격이 가능한 Stand-off 무기 개발 및 확보에 전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



POPEYE 미사일이 지상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

세계가 주목하는 우주강국 중국 II

통신·방송위성 분야

중국은 1970년 DFH(東方紅)-1호 발사에 성공한 뒤 INTELSAT에서 중계기를 리스 받으면서 위성통신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84년 이후에는 중국 공간기술연구원의 주도하에 국내 통신위성을 개발하였다.

① 정지 통신위성 시리즈

DFH-2 시리즈인 동보통신위성은 독일과의 기술협력으로 1984년 발사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발사된 3기의 동보통신위성은 Chinasat-1A~1C로 명명되어 국내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 1991년 12월에는 DFH-2 시리즈의 마지막인 동보통신위성-5호가 CZ(長征)-3 로켓으로 발사되었지만 로켓 결합에 의해 소정의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동보통신위성-5호의 발사 실패로 1992년 12월 궤도상의 미국 통신위성 Spacenet-1호를 구입하여 Chinasat-5호로 운용했다.

차세대 시리즈인 DFH-3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착수, Chinasat-7호가 '96년 8월 발사되었으나 후속모델인 Chinasat-8호는 발사에 실패했다.

지구관측 분야

중국은 우주정책의 중점을 환경보전 및 군사 정보 획득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구관측분야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회수형 다목적 위성(FSW) 시리즈

중국의 지구관측 위성으로는 광학 카메라에 의한 필름 회수방식의 FSW 시리즈가 있지만 군사와 비군사와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FSW의 영상은 대부분 정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 3번째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며 새로운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중국의 우주활동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지난 호 「세계의 우주력-중국 제1편」을 통해 중국 우주산업의 개괄적인 흐름을 살펴본 것에 이어, 이번 호 제2편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야별 산업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통신위성 DFH-3

② 기상 위성 (FY) 시리즈

중국은 1988년에 중국 최초의

의 주회형 기상위성 FY(風雲)-1호를 발사하였고 1990년에는 FY-1B를 발사했지만 궤도상에서 고장났다. 최근에는 FY-1D가 CZ-4B 로켓에 의해 2002년 5월 발사되었다.

정지기상위성인 FY-2호는 1994년 4월 발사 준비 중 폭발하였으나 후속모델인 FY-2A와 2B는 CZ-3 로켓에 의해 각각 1997년 6월, 2000년 6월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③ 중국·브라질 지구자원 위성(CBERS)

1988년 7월, 중국의 공간기술연구원과 브라질의 국립우주연구소는 CBERS(China & Brazil Earth Resource Satellite)라 불리는 지구관측위성 시리즈 2기의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중국 측은 관측센서의 제작과 발사를, 브라질 측은 X밴드 디지털 화상전송 시스템을 포함하는 위성 Bus의 제작과 시험을 각각 담당하였다.

CBERS-1호는 1997년 후반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브라질의 예산 삭감에 의한 프로그램 지연으로 예정보다 2년 늦은 1999년 10월에 CZ-4B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고 2호는 2003년 10월에 발사되었다.

발사체 분야

중국은 12종의 다양한 CZ(長征) 계열 운반로켓을 개발하여 저궤도, 지구정지궤도 및 태양동기궤도 위성발사 능력을 완비하고 있다. 현재 CZ 계열은 저·고궤도에 300~9,500kg, 지구정지궤도에 1,500~5,100kg, 태양동기궤도에 6,500kg의 운반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1985년 해외 상업발사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래 27개국의 위성발사를 담당함으로써 미국 및 유럽과 함께 발사체 영역의 선두 그룹으로 부상했다.

中国酒泉卫星发射中心
CHINA JIQUAN SATELLITE LAUNCH CENTER



위성발사체 CZ-3C 로켓

주요 센터

중국은 다음의 4개의 우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① 주천(酒泉 : Jiuguang) 위성발사센터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으며 제20기지로 불리고 있다.

고비사막에 위치하는 중국 최초의 발사장으로 1960년대 초부터 수백 회에 이르는 미사일 발사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저궤도의 회수식 위성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서창(西昌 : Xichang) 위성발사센터

주천 센터와 마찬가지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관할하에 있으며 제27기지로 불린다. 주천 센터보다 규모가 크고 사천성 서부의 산중, 표고 1,800m의 고지에 위치해 있다.

주로 정지궤도의 통신·방송위성 발사가 행해지고 있다.

CZ-3 로켓과 CZ-2E 로켓의 이동형 시설을 포함하는 2~3개의 발사대와 상업위성을 위한 위성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다.

③ 태원(太原 : Taiyuan) 위성발사센터

제25기지로 불리며 태원센터 역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관할하에 있다.

산서성의 태원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극궤도, 태양동기궤도의 지구관측위성, 주회형 기상위성, 정찰위성의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高)경사각 궤도의 CZ-4 로켓의 발사에 사용되고 있다.

④ 해남(海南 : Hainan Dao) 우주센터

중국 과학원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탄도비행의 발사 기지로서 관측용 소형로켓 발사가 행해지고 있다. (●)



기상위성 FY-1

전투발전단 무기체거처
우주무기지원담당



전통문화가 숨쉬는 마을

역사와 전통의 고장 안동

유교문화의 향기, 안동 하회마을

하회마을의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마을 앞 강 건너의 절벽 부용대에 먼저 올랐다. 본격적으로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괜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마을을 사이에 두고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둘러싸여 하회(河回)마을이라 하고, 풍수지리적으로 하회마을을 '山太極 水太極(산과 물이 태극 모양)'이라 한다니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싶을 만도 했다. 역시 말로만 듣던 산태극 수태극의 형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부용대에서 보면 하회마을은 흡사 항해를 나가는 배의 형상이라 한다. 배의 선수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성황당과 당나무가 서 있고 배의 중심에 해당하는 위치에 가옥들이 자리잡아, 배에 구멍을 뚫으면 배가 가라앉는다 하여 하회마을에는 몇백년을 살아

오는 내내 우물을 파지 않았다고 전한다.

하회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전통마을. 그리로 들어서면 하나 하나가 보물로 지정된 조선조의 기와집들과 서민들의 초가집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마을을 거닐다 보면 옛 모습 그대로의 한복차림으로 마을을 오가는 어르신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것도 하회마을만의 매력이다. 하회마을의 중심부에는 주로 양반들이 살았던 대규모의 기와집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을 에워싸듯이 평민들의 초가집들이 소담스럽게 모여있다.

역시 안동은 선비정신으로 상징되는 유교문화의 본고장이다. 퇴계 이황 이후 주자학의 전통을 이어온 선비들이 오랜 세월 은둔하며 학문에 정진했던 탓인지, 백여년이 넘은 기와집들과 초가집, 유유자적한 주민들의 모습엔 시

대의 흐름도 무색해 보인다. 여태도 전통적인 생활양식 그대로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며 살아 오고 있는 사람들... 조선시대 선비들과 같은, 그러한 고집이 지금의 하회마을을 만든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하회마을은 마을전체가 민속 박물관이다(민속자료 제122 호로 지정).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지정된 여러 유형·무형문화유산들이 고집스레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민속문화에 관한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체험! 전통의 현장! - 풍산한지공예전시관

이곳에서 하회마을만 둘러본다면 식상한 일.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여행지는 따로 있다. 전주만 한지의 본고장이 아니다. 하회마을 입구에는 우리 고유의 멋과 얼이 간직된 전통한지를 만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풍산한지공장이 있다.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도 풍부하다. 질 좋은 닥(楮)에 노련한 기술자의 투철한 장인정신을 더해 순수한지를 전통의 방법으로 생산한다. 풍산한지공장을 둘러보면 체험거리도 풍부하다. 채에 종이죽을 거르는 작업을 하시는 아저씨의 “들어와서 봐도 돼요.”하는 인정스런

한마디에 닥나무 찌는 냄새를 맡으며 한지 제조과정을 관람하고, 따로 마련된 체험장에서는 A4크기의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풍산한지공예전시관에서는 실크스카프 못지않게 화려하고 정교한 나염을 입힌 갖가지 한지와 공예품이 전시·판매되고, 인천국제 공항 귀빈실을 장식한다는 전통한지공예품 닥종이 인형, 한지그림공예, 서예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 이 공장과 붙어 있는 유천한지미술관에서는 한지의 멋과 맛을 흠뻑 체험할 수 있다. 가위나 칼, 물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염색한 한지를 손으로 찢어 붙여 그리는 ‘한지화’만을 전시하는 것으로, 이곳 역시 작가의 작품만으로 채우는 ‘전시 공간’이 아닌, 방문객 누구나 작품을 만들어 전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가위나 칼, 물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염색한 한지를 손으로 찢어 붙여 그리는 ‘한지화’만을 전시.

‘전시 공간’이 아닌, 방문객 누구나 작품을 만들어 전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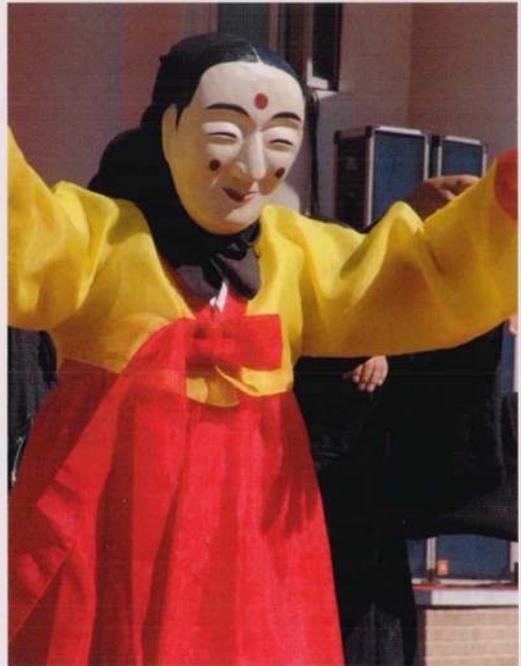


풍산 한지공예 전시관에 전시된 전통한지 공예품들(좌)과 닥종이 인형(우)

200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하회별신굿 배우기)

역시 하회마을 하면 탈놀이와 하회탈이 유명한데, 마침 마을에는 국제탈춤페스티벌이 한창이었다. 200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하회마을을 비롯한 안동시내 전 지역에서 열리는 커다란 문화축제이다. 안동지역이 전승해온 풍부한 문화유산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수용·계발하여 세계적인 문화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통 문화계승의 원동력임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각 국의 전통 문화가 한데 어울려 안동만의 가치관으로 재편성되어 꽃을 피운 것이 오늘의 축제가 아닌가 싶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마음속으로 배우고, 탈춤이 가진 신명을 몸으로 체험하는 탈춤축제는 안동문화를 답사하는 것과 축제의 신명을 함께 하는 것이 하회마을의 태극처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다.

하회마을에서는 또 축제의 일환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에 의한 ‘탈춤따라배우기’ 코너를 마련, 관광객들이 직접 탈춤을 배워볼 수 있도록 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회장이 직접 탈춤 시범을 보이며 양반탈, 선비탈, 부네탈 등 9개 하회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했고, 세 명의 전수자들이 탈춤을 가르쳤다.

“팔을 어떻게 뻗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캐릭터의 성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회탈의 섬세한 숨결이 묻어납니다.” 구경만 하는 탈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생하고 입체적인 체험으로 탈춤 한사위에 어깨가 덩실거렸다. 커다란 체격의 사람들도 육감적인 기녀 ‘부네’의 탈을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서민들의 놀이였는데, 별신굿과 아울러 서낭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탈놀이를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탈춤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쓰고 탈춤을 추면 신기하리만치 섬세하고 요염한 분위기가 배어 나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서민들의 놀이였는데, 별신굿과 아울러 서낭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탈놀이를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탈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탈놀이 중에는 탈을 쓴 광대가 양반을 향하여 평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나무랄 수 있었으며, 양반에게 수작을 할 수도 있어 해학과 더불어 서민들에게는 언로(言路)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먹거리 - 출사위 주린 배 헛제삿밥으로 달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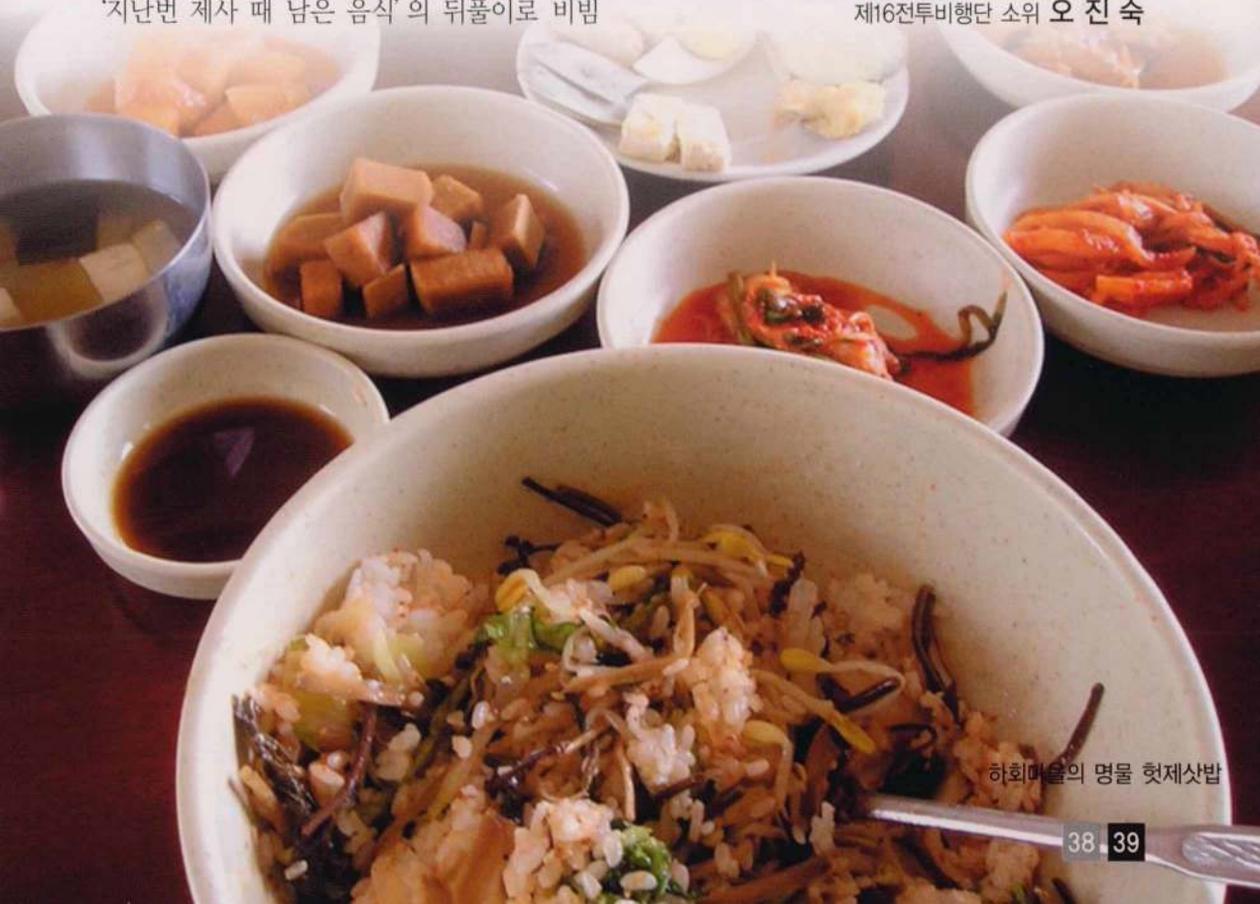
하회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헛제삿밥! 간고등어, 안동찜닭, 헛제삿밥은 안동의 별미다. 그 중에서도 헛제삿밥은 옛 선비들이 밤에 글을 읽다 배가 출출하면 이웃과 아랫것들을 속임수로 몰아넣고 제삿밥 핑계를 대며 해먹었던 것이다. 우리 음식엔 이처럼 악의 없는 거짓음식도 있어 재미있다. 주인 아주머니는 '지난번 제사 때 남은 음식'의 뒤풀이로 비빔

밥이 발전했다는 설명도 곁들여 주신다. 그러니까 제삿밥을 제사가 없는 날 숨어 차리는 게 곧 헛제삿밥인 셈이다. 때문에 양반골 안동에서 헛제삿밥 상차림이 나타난 것에 절로 수궁이 간다. 하회탈 놀음이 서민들의 생활에서 해학을 자아내듯, 헛제삿밥 또한 아웃사이더로서의 해학을 지닌 먹을거리라 할 수 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역사와 전통의 고장 안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오늘 하루 내 가슴을 채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안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감동'은 결코 아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소리나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의 아름다움처럼... 그것은 우리가 잊고 지내던 여유와 즐거움이고, 감동이다. 현대사회 변화와 생존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동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

제16전투비행단 소위 오진숙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그림 : 김영은

맹사성(孟思誠)이 스무 살에 경기도 파주군의
군수로 임명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젊은 군수는 어느 늙은 선비를 만나
"내가 이 고을의 군수로서 최고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맹사성은 "그런 것이라면 세살 먹은 어린애도
알겠소."하고 거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차나 한 잔 하고 가라며 그릇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이 넘치도록 찻물을 떠랐습니다. "어르신, 찻물이 넘치잖소!" 맹사성이 소리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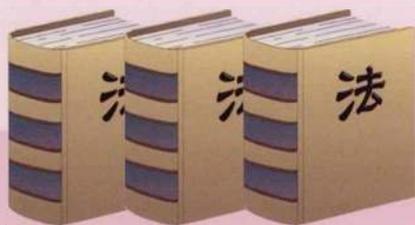
그러자 노인은 "찻물이 넘쳐 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면서 어찌 지식이 넘쳐 인심이 망치는 것은 모르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한 젊은 맹사성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다 그만 문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청백리이자 존경받는 명재상이었던 맹사성. 그 역시 오만함으로 부끄러워했던 젊은 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거울 삼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을 지녔기에 존경받는 인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性매매 특별법



‘**윤**락행위 방지법’이 40여 년 만에 폐지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공포돼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하여 윤락녀를 처벌 대상으로 보아왔다. 범죄자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비자발적으로 윤락행위에 종사하게 된 여성을 피해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취지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훨씬 강력해진 법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은 윤락녀를 피의자로 취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같은 형을 과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부정적 의미의 ‘윤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가 전면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다소 관대해지는 반면 성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처벌보다 한층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다소 관대해지
반면 성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처벌보다 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업주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엄히 처벌되며 정부는 이미 내년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집창촌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하는 일체의 행위가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이 모두를 성매매로 규율,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른바 청량리나 텍사스촌 같은 곳에서 돈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으며,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돈을 주고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알선을 부탁하는 경우도 엄하게 처벌된다.

또한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업소 주인도 징역형을 부과하여 음성적인 성매매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아예 성매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범죄집단이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매매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등의 범죄를 신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천만원

의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따라서 성매매관련자의 경우는 경찰의 단속 외에도 또 다른 제3자의 신고 내지는 성행위를 한 상대방으로부터도 신고나 고발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장 무서운 것이 청소년과의 성매매인데, 비록 성을 산 쪽에서는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신원도 공개되므로 아예 성매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순간의 실수가 일생을 망칠 수 있다

될 수 있는 한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고, 특히 앞으로 얼마간은 집중단속이 있을 예정이므로 의심의 소지가 있는 장소엔 아예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장소에 가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성매매

를 요구한다든지 알선해달라고 업주에게 부탁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노래방의 경우 업소 측에 이른바 '도우미' 들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현명하지 못하다. 성매매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젊은 장병들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른바 청량리나 미아리 등의 율락촌에 출입하여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이 바로 이런 행위 유형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으로도 주의를 요한다. 장난으로라도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금전을 줄 테니 만나자는 등의 대화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대화방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대화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이 금전의 언급이다. 즉, 대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에는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 단순한 예를 들자면 "오늘밤 만나요"라는 대화방과 "10만 주면 오늘밤..."이라는 대화방인데 전자의 경우는 괜찮지만 후자의 경우는 안 된다. 대화를 하다가도 금전적 대가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 성매매도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지귀연

요통의 예방과 치료

요통은 일선 의무실에서 감기, 무좀과 더불어 가장 흔하게 보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통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80%가 일생 중 한번 이상은 통증을 경험하고, 매년 5% 정도의 사람이 요통으로 고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특별한 진단 장비와 치료 장비가 없는 일선 의무실 급에서는 요통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군의관과 환자 모두 난감해지는 병이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는 급성 요통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과 요통 발생을 막기 위한 생활 수칙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요통, 이런 경우엔 즉시 검진을

우리 몸에서 척추는 목부터 각각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의 다섯 부분으로 나뉘지는데 요통은 바로 이 요추와 요추 주위의 근육과 인대로부터 발생한다. 척추 뼈의 생김새는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손으로 잡고 살을 발라먹는 뼈가 바로 돼지의 척추 뼈이다. 척추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데다가 여러 종류의 외력을 받기 때문에 자주 손상을 받지만 대부분의 요통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2주 이내에 좋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수핵탈출증과 척추강이 좁아져서 생기는 척추강 협착증, 척추의 관절염 등이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는 염좌라고 불리는 근육의 경련이나 긴장에 의해 생기는 경우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통 환자의 90%는 3개월



이내에 일상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에 있어 보다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요통이 있으면서 체중이 감소하거나 열이 지속되는 경우, 요통과 다리로 뻗는 통증이 심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발가락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떨어지는 경우, 소변/대변을 지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요통은 척추 주위 근육과 인대의 손상으로 오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지키면 무난히 회복될 수 있다.

일반적인 요통의 치료법

먼저 통증이 시작되고 2~3일간은 침상 안정이 필요한데 그 기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침상에서 오래 있을수록 근육이 약해져서 그만큼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능하면 조기에 허리 운동을 시작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리 강화 운동을 아침·저녁으로 5~10분간 실시하는 것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강화해주는 효과를 낳는다(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의무감실 홈페이지나 각 항의 전대 자료실, 인터넷 의학 사이트 등에 잘 나와

있으므로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악화되거나 신경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증에 대해서는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핫팩이나 초음파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통증과 치료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압통점 주사나 추나 요법, 한방 치료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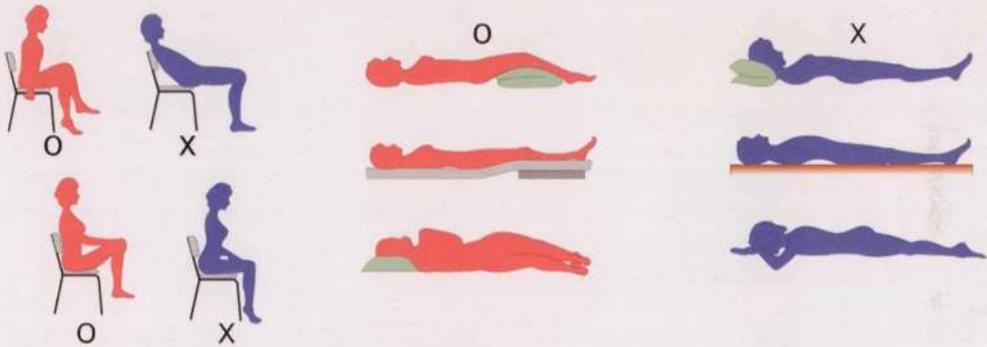
어가는 시간과 노력의 10분의 1만 평소에 투자해도 훨씬 큰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평소의 자세나 물건을 잡고 옮기는 방법 등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요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요통 환자의 75% 정도는 회복 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요통 환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평소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혀 요통을 예방하도록 하자. 📌

평소에 실천하는 요통 예방법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요통도 치료에 들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이철민



- 서있을 때는 무릎에 힘을 빼고 자주 체중을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옮겨주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다.
- 등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의자를 선택하고 허리의 굴곡에 맞는 작은 쿠션을 받쳐주는 것도 좋다. 또 발을 바닥에 붙여서 앉거나 발걸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 침상에서는 편안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자주 몸의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으며 일어날 때는 똑바로 허리를 굽혀 일어나는 것보다는 옆으로 몸을 굽힌 뒤 손으로 바닥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 좋다. 또 엎드려 자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는 것도 허리에 도움이 된다.
-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만 굽히지 말고 반드시 꾸그려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같이 이용해서 들도록 한다.
- 물건을 옮길 때는 가능한 몸 가까이 물건을 붙여서 옮기는 습관을 가진다.
-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몸을 뻗지 말고 사다리나 받침을 이용해서 잡도록 한다.

동아리 발표회를 준비하며

「가을밤의 축제」



우리들만의 축제

10월 5일 저녁 6시, 한 명의 관객도 찾아들지 않는 와룡문화회관에 모인 20여명의 장병들. 조명 점검에 악기 세팅, 무대 청소 등으로 모두들 분주한 모습이다. 한 달 남짓 준비한 '가을밤의 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밤의 축제'는 부대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밴드/댄스/마술/관악기/영상제작 등 5개의 문화활동 동아리의 합동 발표회다.

물론 이전에도 동아리 발표회를 2번이나 했지만, 규모나 준비 측면에서 많이 미흡했는지, 마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몇몇을 모은 합동 발표회를 계획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가급적 외부 도움 없이 영내병사 자체적으로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참여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가 아닌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고 싶었다.

힘들지만 즐거웠던 1개월간의 준비과정

우선 함께 공연할 동아리들을 섭외했다.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했는지 구상회의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다. 다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었고, 멋진 발표회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에 처음부터 설레었다.

영화제작 동아리 「NEMO」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발표회 전체 연출까지 담당하게 되니, 발표회용 영상제작은 물론 공연 기획, 합동 연습, 스텝 섭외, 무대 조성 등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동아리 연습을 둘러보며 5개의 동아리





공연이 잘 어우러지도록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연습 스케줄을 조정했다. 각기 다른 근무 여건과 연습 공간의 부족으로 함께 연습할 시간을 마련하기도 힘이 들었다. 그리고 공연을 빛내줄 스텝들을 섭외하기 위해 갖은 감언이설(?)도 아끼지 않아야 했다.

준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공연을 더욱 빛내줄 무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감언이설에 현혹된 5명의 스텝들과 함께 조명에 각양각색의 셀로판지를 붙이고 빛의 방향을 조정했다. 알록달록한 색지를 오려붙여 무대 위에 가을분위기를 연출하고,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도록 합판과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 대형 스크린을 제작했다.

일과 후나 주말 등 틈이 날 때마다 모여서 공연준비에 대해 구상회의를 하고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의 시간은 결코 길지가 않았다. 급기야 모든 스텝과 출연자들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와룡문화회관 무대 위에서 작업과 연습을 겸해야 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정보통신대대 무선반에서는 음향을 선뜻 지원해 주었고, 위관장교단에서는 공연준비를 위한 찬조금까지 지원해 주었다. 정훈장교님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공연 리허설을 도와주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었다.

드디어 축제의 막은 오르고

단장님을 비롯한 장병들과 관사가족이 참석

한 가운데 NEMO(영상제작동아리)의 오프닝 영상과 소금쟁이(댄스동아리)의 멋진 댄스로 가을밤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결성된 이후 일요일마다 꾸준히 연습해온 마술동아리 '일루전'의 마술은 아마추어들의 공연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급 실력을 과시했고, 관악기동아리 '맑은 물소리'의 트럼펫, 클라리넷 연주는 키보드/기타 소리와 어우러져 고요하면서도 멋진 화음을 울렸다. 또, 다양한 공연들 중간중간에 삽입된 NEMO(영상제작동아리)의 코믹하고 짤막한 영상물들은 모든 관객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았다. 그리고 이날 행사의 대미는 밴드 동아리 '서스틴'의 열정적인 무대로 장식되었다. 특히, 객원 가수로 특별 출연한 김지영 하사의 멋진 듀엣곡 'Honey'는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축제를 마치며

축제를 준비했던 모든 장병이 무대 위에 함께 올라 '마지막 축제'를 합창하며 무대의 막을 내렸다. 천천히 내려오는 커튼에 무대를 가득 메웠던 음악과 찬란한 조명, 공연 준비에 고생한 동료들, 그리고 객석에서 성원해주던 장병들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와 함께 혹시 실수할까봐 맘졸였던 긴장감이 서서히 아쉬움으로 바뀌어갔다.

이젠 열기로 가득했던 공간에 관객이 모두 떠나고 공연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 공간은 공연 준비로 흘린 땀내음과 힘들지만 즐거웠던 기억들이 스며들어 멋진 축제의 공간으로 되새겨질 것이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와룡문화회관 문밖을 나섰을 때, 깊어진 가을 날씨 탓인지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축제의 따스했던 추억이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 맘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제3훈련비행단 병장 박성제



11월의 공군 역사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작전(1968)

1968년 10월 30일 울진·삼척지구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 소탕작전(태백작전)에 공군은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접항공작전, 병력(3,975명) 및 화물(50,920Lbs) 공수, 조명탄 투하 등 559소터의 항공작전을 실시하여 무장공비 소탕에 크게 기여했다.



KT-1 항공기 “웅비” 명명식(1995)

국내기술로 연구 개발한 한국공군의 기본훈련기 KT-1 항공기에 대한 명명식을 1995년 11월 28일 서울기지에서 거행하였다.

KT-1 항공기는 10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1991년 12월 12일 초도비행에 성공하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라”는 뜻으로 “웅비(雄飛)”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친필휘호를 하사하였다. ⚡



11. 1 공군본부 시설감실 신설(1952)

제83통신전자정비창 창설(1977)

제37전술정보전대 창설(1986)

제41보급창 창설(1987)

제88방공포전대 창설(1988)

교육사령부 대전에서 진주로 이동

완료(1988)

중앙관리단 창설(1988)

11. 3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작전 참가 (1968)

11. 7 한미 연합사령부 창설(1978)

11.10 C-47 수송기 도입(1950)

11.15 교재창 창설(1957)

제80항공창 창설(1951) → 이후 제81 항공정비창으로 개칭

11.27 U-10B 항공기 도입(1969) → 1972. 8. 24. 퇴역

11.28 국내개발 기본훈련기(KT-1) “웅비” 명명식(1995)

11.30 평양 미림기지로 전진하였던 한국공군 대전기지로 철수(1950)

C-46 수송기 퇴역(1978)



아직도 음식을 남기십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하는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제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까지는 한달여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전혀 줄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저 미흡한 상태여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8톤차 1,880여대

전국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8톤차로 1,880여대 분이며, 1년이면 자그마치 68만대 분이나 된다. 이를 일렬로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8번을 왕복할 수 있고,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8조원이나 된다. 결국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1%가 넘는 엄청난 액수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음식물 전용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공공 처리시설을 더 늘릴 예정이지만, 이들이 모두 가동된다 하더라도 현재같은 양이면 하루 3천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들은 지금처럼 계속 매립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에 대한 오해

한편 음식 찌꺼기야 '금방 부패하니 파묻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상상이다. 음식물 찌꺼기를 매립할 경우에는 많은 물기로 인해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또한 침출수 유

출로 인한 토양오염, 악취, 해충번식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소각을 할 수도 없다. 소각을 할 경우 낮은 발열량과 많은 수분 함량 때문에 소각 효율이 저하되고, 불완전 연소로 인해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음식물 찌꺼기의 가장 큰 재활용법은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것. 영양분 함량이 일반 배합 사료보다 2배 이상 높아 사료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등을 골라내고, 재가공하여 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양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다.

남기지 말고, 먹을 만큼만 먹자

얼마전부터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을 남기기 이전에, 먹을 만큼만 덜어 먹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한 얘기지만)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음식을 남기는 것도 큰 낭비지만, 이를 처리하는 비용 역시 엄청난 낭비임을 명심하자. Ⓣ

공군본부 중위 정연석

11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우주의 신비展

(미국과 소련의 주도로) 인류가 우주를 개척하기 시작한 지 어느새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군사, 과학, 방송통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우주개발이 최근에는 관광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엔 (엄청난 경비 때문에^^)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국립 서울 과학관을 찾아가면 누구나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다.

NASA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지원하는 **우주의 신비展**은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우주관련 전시회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월면 걷기, G-FORCE(중력가속)체험, 자이로 훈련 체험 등 방문객들의 직접체험을 강조한 '체험형 전시'가 강조되었다.

이번 전시에선 우주 비행사 훈련체험장비와 美화성 탐사선 스피릿 실물모형 등이 국내 최초로 공개되며, 특히 현재 전남 외나로도에 건설 중인 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한국 최초의 우주로켓 KSLV-1의 모형을 전시, 우리나라 우주계획의 현주소를 비교/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전시는 어른들에게는 우주계획의 현재와 미래를, 어린이들에게는 우주비행사의 꿈과 도전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뜻 깊은 전시가 될 것이다.

- 국립 서울 과학관에서 2005년 3월 1일까지
- 관람요금 : 일반 10,000원, 소인 5,000원
- 문의 : 02-741-1155(www.gospa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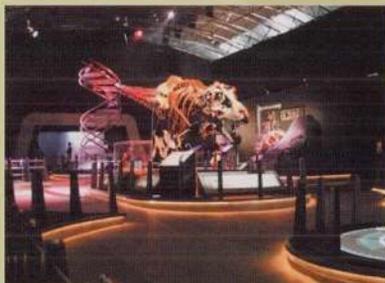


· 로켓가든
· 문워커
· 허블망원경관

쥬라기공원 투어

1993년 여름, 전세계를 흥분시킨 영화 쥬라기 공원. 그 감동과 공포를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느낄 수 있는 이벤트, 쥬라기공원 투어가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쥬라기공원 투어는 전시와 공연이벤트, 체험이 절묘하게 복합된 행사이다.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비롯해, 영화 쥬라기공원의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직접 프로듀스했으며, 참가자들은 하나의 큰 전시장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섹션별로 나뉘어져, 영화속 세계를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체험하게 된다.



· 디스커버리센터

영화와 같이 인젠 연구소를 시작으로 투어는 시작된다. 연구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티라노사우루스(T-REX)의 실물크기 모형 및 화석인 스탠, 공룡 복원을 위한 생물학 자료 등을 만날 수 있다. 연구소를 지나 클린 룸으로 들어가면 에어샤워를 통해 우리 몸의 미세한 세균과 먼지를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공룡들이 사는 지대로 들어가게 된다.

초식공룡지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집단 서식지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공룡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고, 육식공룡지대에서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장 사이로 공룡들이 다가오면서 공포감을 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각종 TOUR ZONE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 12월 12일까지 인천 문화예술회관 특설전시장(매주 월요일 휴무)
- 입장요금 : 소인 10,000원, 성인 12,000원, 3인 이상 가족할인
공군가족(군 신분증 지참 시) 1인 4매까지 20% 할인
(가족권 제외)
- 문의 : 032-433-3614(www.jurassicpark.co.kr)

아름다운 환경조형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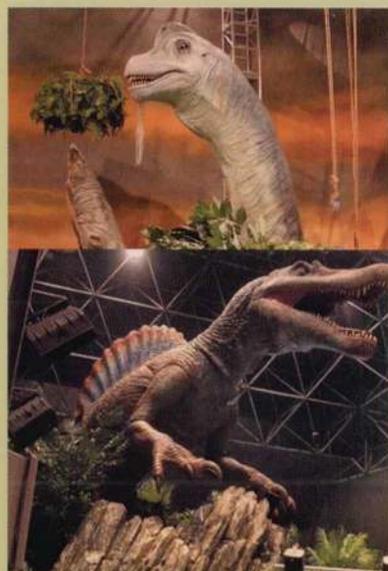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제로 한 수많은 전시회들이 세계 각지의 갤러리와 미술관을 통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조선회랑의 아름다운 환경조형展은 그런 딱딱한 공간들을 탈피, 우리환경 전체를 이용하여 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른바 환경을 주제로 한 환경조형미술인 것.

환경조형미술이란 작품을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서, 작품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빛이나 소리까지도 고려요소로 활용한다. 이번 전시에는 총 25명의 작가들이 참여, 조각과 동양화, 판화, 서양화 등 다양한 양식의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전시는 우리 인간들의 자연회귀본능과 환경과 우리들의 직접연관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선회랑에서(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료관람
- 문의 : 02-6000-5880~1(www.chosungallery.co.kr)

제2방공포병여단 병장 지인홍



· 초식공룡지대
· 정글지역



· 임동락 작
· 코엑스 내 전시된 작품사진

약속



전 철에서 내려 급히 뛰어가는 중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아! 이 시간쯤에 문자가 오면... 집중팔구, 나와 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빠른 걸음으로 뛰듯 걷는 듯 그렇게 가면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보면... 역시나 어김없다.

“친구야, 나 조금 늦을 것 같다, 미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내 빠른 걸음은 이내 속도를 잃어버린다. 아니, 외려 남은 시간을 어찌하면 좋을까... 새삼 다른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냥 멀뚱하니 서서, 오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어디선가 차를 마시며 기다리기도 어중간한 시간이고...

그렇게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늦어질대로 늦어진 걸음을 하여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기다림을 시작한다.

늦어진 약속, 방황하는 마음

누군가와 만남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나가는 시간은 즐겁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는 그동안 어떻게 변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며칠 전

통화하던 목소리에 고민이 배어있더니만,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저런 상상과 생각들로 약속장소에 나가는 시간 내내 기대 '만땅!'

그런데... 막상 장소에 도착해 보면, 텅 비어있기 일쑤다.

그럼, 문제는 이제부터 생긴다.

평소에 책 한 권 들고 나가는 경우는, 길거리에서 서서 빨쫌하니 책을 읽기도 하지만, 오가는 사람들 속에 산만해진 마음은 10분을 채우지 못하고 이내 책을 덮어버리게 된다.

그리고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걸을까, 저 커플은 너무 달살스럽네, 저 사람 옷차림은 또 뭐람... 이러쿵 저러쿵 혼자 평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도 금새 싫증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방황을 한다.

애초의 즐거웠던 마음, 잔뜩 기대에 부풀어 가볍게 출발했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끊임없는 약속을 한다.
스스로와 약속을 하든,
혹은 다른 이와 약속을 하든.
그 많은 약속 중에 과연
지켜지는 것은 얼마나 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나와의 약속이 이 친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나와서 만남이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지못해 준비하고 나오는 터라 늦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들에, 몰려오는 짜증에, 슬슬 기다림에 대한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조금 더 기다린 후... 멀리서 뛰어오는 친구를 보면 그 잠깐의 짜증과 화냄을 오히려 미안해하지만 말이다.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것?

'약속'은 많은 영화나 방송의 소재로 이용되어왔다.

그런데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분명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물론, 주인공은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기 마련이고, 영화나 방송에서는 빠뜨리지 않고 그 노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시점에서 시작한 영화는 결국 파행으로 가거나, 빠른 길을 한참을 돌아 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약속,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

나폴레옹의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처럼, 약속은 그렇게도 지켜지기 어렵단 말인가. 그렇

다면, 많은 만남의 약속에서 늦게라도 나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끊임없는 약속을 한다. 스스로와 약속을 하든, 혹은 다른 이와 약속을 하든. 그 많은 약속 중에 과연 지켜지는 것은 얼마나 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사소하다고 여겨, 혹은 귀찮다고 여겨 약속을 무시해버리지는 않았었는지...

많은 다짐과 약속으로 시작했던 2004년.

그리고 어느덧, 그 약속을 점검해볼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 2달 여의 시간은, 애초에 맺었던 약속을 점검해보고, 그냥 지나쳤던 약속들을 지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하루하루, 내가 해내고자 했던 것에,
내가 지키고자 했던 약속에 충실한
하루가 되어 보자!**



방송작가 함은선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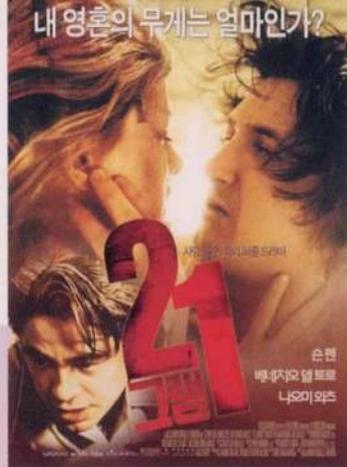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인가?”라는 카피라이트로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는 영화가 있다. ‘21그램’은 초코바 하나의 무게, 생쥐 한마리의 무게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소리 없이 빠져나간다는 무게를 뜻하기도 한다. 영혼의 무게는 사람마다 같은가? 우연히 동시에 여러 명의 인간을 비극적인 밑바닥으로 밀어붙일 때, 그 중 누군가의 영혼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무겁다는 것을 무엇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21그램>이 영혼의 무게라는 21그램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네 삶은 엄청난 동력으로 살얼음판과 같은 운명을 거슬러 올라가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인간과 삶을 힘껏 껴안는 영화 <21그램>은 2004년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최고 걸작 가운데 한 편이다.

세 비극적인 주인공의 이야기

개별적인 욕망과 사연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사회학적 장광설을 인용하지 않아도 알기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진실이다. 그럴 때 이야기는 일종의 퍼즐 게임

이 되고 사건은 시간적 순서를 거스르면서 재구성된다. 세 비극적인 주인공의 이야기인 <21그램>이 전승하려는 보편성은 사랑과 복수, 죄와 같은 비장하고도 신화적인 상황이다. 대학교수인 폴은 심장병에 걸려 심장 이식만을 기다리고 있고, 두 딸과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크리스티나에게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돌진한다.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남자와 갑작스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여자를 연결시키는 인물은, 상습전과자의 때를 벗기 위해 종교의 정화수에 몸을 맡긴 가장 짝이다. 짝이 생일파티를 위해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크리스티나의 가족을 치면서 접촉의 매개체가 표면에 떠오른다. 생명과 영혼이라는 테마는 선형적인 시공간을 벗어난 이야기의 진행에서 수수께끼의 기원이자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된다. 그리고 각각의 인물이 겪게 되는 존재의 위기와 비극이 영화 전체의 보편적 주제를 순환시킨다.

세 인물의 추이와 변화는 연대기적인 선후관계를 벗어나 섬광처럼 점멸한다. 관객은 현란하고 분방한 시퀀스에 대한 잔상을 순차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럴 때마다 주제의 맥박이 점차 빠르고도 분명하게 박동해 나감을 감지할 수 있다. 폴은 크리스티나의 남편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그녀가 장기기증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심장을 얻게 된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정서적인 맥박은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하다. 미래의 삶이 결국 과거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요구함을 절감한 폴은 아내와의 순탄치 못한 관계를 벗어나 크리스티나의 존재를 찾아 나선다. 마침 그녀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은 슬픔에 복받쳐 마약에 손을 대고 있던 차였다. 불확실한 내일(그의 새 심장은 언제 거부반응이 일어나 벗을지 모른다)에 직면한 남자가 내일을 박탈당한 여자와 마주친다. 존재에 회의를 갖는 남자가 존재의 일부를 빼앗긴 여자가 서로 가까워진다.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이 생명의 교환이라는 회로 속에서 합류하고 그들은 영혼의 무게가 서로 같음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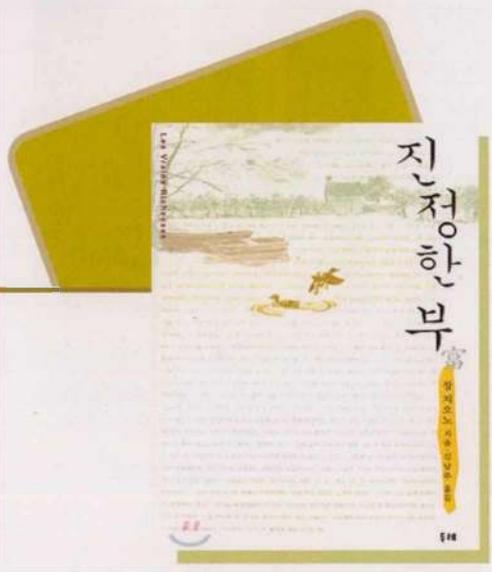
엮혀진 운명 속에 고뇌하는 세 주인공

사실 많은 퍼즐형 서사는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의 계기 속에서 합류한다'는 기대감을 자극한다. 그렇다면 이 뒤엎힘과 흩어짐의 시발점인 책은 결국 나머지 두 인물과 만날 것이다. 문제는 만남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책은 폴과 크리스티나가 처한 공통의 한계인 '구원'의 문제를 죄의식과 함께 구체화한다. 문신과 험악한 인상 때문에 거부감을 주는 책은 술한 감옥 살이 속에서 신앙을 통해 가정을 다시 꾸리고 갱생을 꿈꾸지만 그 꿈은 불현듯 엄습한 교통사고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다. 고뇌 끝에 자수를 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크리스티나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풀려나지만 죄책감의 악령은 끈질기게 책을 괴롭힌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살려던 희망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구원의 불가능성'이라는 무게감이 책의 망가진 영혼을 내리누른다. 자신이 처했던 끔찍한 찰나의 순

간을 자책하며 책이 비탄에 빠질 때 그 울음과 몸부림은 크리스티나와 폴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 크리스티나에게 파탄의 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폴에게 죽음은 예정된 조화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찾아 해매는 구원의 동아줄은 영혼이 빠져나가듯 끊어졌기 때문이다.

영혼의 색채는 달라도 질량은 동등하다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 선택은 이 세 인물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 된다. 책은 가족을 떠나고, 크리스티나는 복수라는 동기를 충전하여 폴에게 복수를 권유하며, 폴은 크리스티나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 기회삼아 그녀와 함께 책의 행방을 추적한다. 이렇게 해서 세 영혼의 무게가 하나의 저울에 나란히 측정될 때 클라이맥스가 찾아온다. 관객은 이 '결정적 장면'의 일부를 이미 초반부에 목격했지만, 세 명의 숨결이 흩어졌다가 차곡차곡 수렴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기대감의 정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곳을 기점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구원의 빛이 희미하게 내비치면서 미래의 생명이 움트게 된다. 하나의 사고로 엮혀든, 그 속에서 각자 불구가 된 세 육체가 상실의 극한을 질주하다가 희망의 도로를 간신히 찾아낸다. 세 명의 운전자가 수많은 교차로를 지나며 엇갈리는 125분간의 세계를 주파하고 나면, 경로들을 연결시켰다는 지적 즐거움 이상의 정서적인 감동에 당도할 수 있다. 영혼의 색채는 다르더라도 호흡에 내재된 영혼의 질량은 동등하다는 의미를 담은 '21그램'이라는 마지막 이정표와 함께. Ⓣ



진정한 부

- 장 지오노 지음 -

‘나무를 심은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프랑스 소설가 장 지오노는 1895년에 아름다운 자연풍광으로 유명한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다. 구두수선공인 아버지와 세탁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은행원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이 문학청년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평화주의자, 생태주의자로 만들어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스무살 남짓 되었을 때 겪게 된 세계 제1차대전이었다. 열강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광기의 현장을 목도한 그는 전쟁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서구 문명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글을 써내기 시작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비판

‘진정한 부’(1936년)는 이런 장 지오노의 사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서구 문명을 주도해온 카톨릭적 세계관 대신 고대 그리

스 신화적인 상상력과 범신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서술된 이 책은 산문과 소설을 중횡무진 오가며 작가의 ‘도시’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고 있다. 인간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거대한 기계의 부속이 되어버리고, 서로를 경쟁상대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도시’를 작가는 ‘거짓된 부’라고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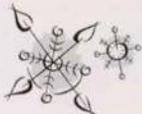
진정한 부란 무엇일까?

그가 말하는 진정한 ‘부’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 ‘청빈’이다. 그는 심지어 일의 대가로서 받는 돈조차 사람이 청빈에 이르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과격한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작가의 이런 사상들은 초야에 묻혀 살며 청빈을 낙으로 살던 우리네 옛 선비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물론 현대한국에서 장 지오노의 생각들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장 지오노가 살던 시대의 파리보다도 훨씬 더 고도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누구나 한번씩은 도시생활에 대한 심한 회의감을 가진다. 그러나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기농 야채를 먹는 것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장 지오노가 던져 놓은 화두, ‘진정한 부란 무엇일까?’는 분명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책에서 지나치게 깊은 감명을 받아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을까 봐 걱정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장 지오노의 ‘진정한 부’는 그 사상의 고귀함 외에도 들판에 산들거리는 풀잎의 감촉이 느껴질 정도로 잘 쓰인 산문을 읽는 큰 즐거움이 있으니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첫눈이 오는 11월에



여름내 푸르던 잎새는
바스러질 듯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어느덧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찬바람 타고 다가온 겨울

11월 중순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다가 중순 이후에는 갑자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성큼 겨울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하순으로 가면서 기온 하강폭이 점점 커져 영하의 날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리면서 월동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월 평균 기온은 3℃~15℃, 평균 강수량은 50mm 내외로 점점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가뭄이 시작된다.

눈을 동반한 돌변기상에 대비하자

한편, 11월에 종종 발생하는 눈을 동반한 갑작스런 돌변기상은 항공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올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많았고, 특히 미국에서는 한 달 사이에 4개의 초대형 허리케인이 미국의 남서부를 강타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초의 이상고온, 여름의 많은 비, 그리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태풍이 한반도에 자주 영향을 주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11월에도 계속 이어져, 기상이변에 의한 악기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부대는 날씨변화에 각별

한 관심을 가져 지상작전 및 항공작전 시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또한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추운 날씨로 인해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는 때이기도 하니 실내에서는 물론 야외 작전 시에도 화재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절기로는 찬 서리가 내린다는 입동(立冬)이 7일이고, 첫눈이 내리고 무말랭이, 꽃감 말리기를 한다는 소설(小雪)이 22일이다.

찬 서리 내리고 집 한쪽 감나무 끝엔 까치 밥만이 남아 홀로 외로운 때가 입동이다. 일순간 몰아치는 바람은 짧았던 가을의 끝을 알리고 벌써 긴 겨울의 시작을 고한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11월을 추수를 끝내고 아무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달이라 하여 '상달'이라 했고, 일하지 않고 놀고먹을 수 있어 '공달'이라고도 했다. 이는 곧 11월이 본격적인 겨울 준비를 하는 달임을 의미하기도 했다.

우리 역시 다가올 동계 업무에 준비를 하면서 1년의 업무를 정리할 때이기도 하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

제73기상전대 대령(진) 염영경



독자의 소리

『건강 365』 코너가 유익했습니다. 환절기인 요즘 감기와 독감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겨울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대구시 동구 백안동 이종원

유가가 50달러를 돌파하면서 각종 물가들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엔 씹씹이를 줄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인지 『화제의 공군인 - 23년간 자전거로 출퇴근한 박만식 군무원』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네요.

경남 진주시 사봉면 이해진

공군 하면 그저 멋스럽다, 저 멀~리 하늘의 파수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월간 『공군』을 읽으면서 우리 곁에 있는 든든한 친구 같은 느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대전시 서구 내동 이순옥

『건강 365 - 감기와 독감』을 가장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 있거든요^^ 유용한 정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진주시 덕진구 정동익

군 최초의 여성 기장에 관한 글이 가장 흥미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도 귀감이 가는 좋은 글 많이 실어주세요.

경남 김해시 장유면 김재운

지난 호에 이어 이번 10월 호도 잘 읽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과 함께 시작한 자대 생활. 앞으로도 전역할 때까지 곁에 있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2동 이한

『생활 속의 실천 - 태극기 계양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코너가 기억에 남네요.

국경일에 태극기를 계양할 때 이제껏 잘 몰랐던 점들을 일깨워 준 내용이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북구 호계동 김종욱

“공군 제1호 여군 기장 탄생” 박선미 하사님 기사를 읽고 남자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군에서 자랑스러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상대동 주보미

『동아리 마당 - 뮤지컬 동아리 셀위 댄스』 코너를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군대도 이제 자아발전의 장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군 파이팅~!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임용택

월간 『공군』 책자를 넘기다 자연스럽게 『그림 이야기』 페이지에 눈이 고정됩니다. 순간 순간 잊고 있던 마음속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기에 힘들게만 느껴지는 이 세상이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대구시 동구 검사동 진인출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2006.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흥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31~7, 02) 506-6231~7

2004. 11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04. 11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다른 그림 찾기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쿠웨이트로 전개하는 다이만부대 C-130 항공기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지난호 정답



▶ 지난호 당첨자

- 대구시 동구 백안동 이종원
- 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이한영
- 전남 목포시 연산동 김우영
- 충남 보령시 신흑동 임문택
- 충남 계룡시 남선면 최범선
- 대구시 광산구 도산동 김영환
- 경남 진주시 상대2동 주보미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덕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동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김지훈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번호에도 많은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11월 20일까지

“다이만 키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진)주장 안 정 훈

“다이만”은 이라크 평화 재건사단인 자이툰 부대의 인원과 물자 공수를 지원하기 위해 쿠웨이트 공군기지로 파병된 공군 제58항공수송단의 별칭이다. 아랍어로 “항상 그대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다이만 부대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공항에서 환송식을 가졌다.

자이툰 부대가 이동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송식도 공개하지 않은 탓인지 다이만 부대의 환송식은 언론에서도 대서 특필 하였다.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 잡은 명장면, ‘다이만 키스’

이날 언론과 네티즌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최고의 기사는 바로 ‘사진’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진은 역시 ‘키스’ 장면이었다.

두 눈을 꼭 감고 쌍둥이 두 딸의 뽀뽀를 받는 황보근 소령의 모습과 연인과 포옹한 채 키스를 나누고 있는 윤두환 대위의 사진은 우리의 시선을 잡기에 충분했다.

윤 대위 커플에게는 “다이만 연인의 작별 키스”, “아쉬운 다이만 연인”이라는 사진 캡션이 붙여졌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한국군이 여러 차례 해외에 파병되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인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키스를 나누는 모습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 신선한 충격과 함께 느껴졌다.

파병 장병들이 가족, 또 연인과 작별 키스를 나누는 사진들은 곧 인터넷 사이트 곳곳에 올려졌고 네티즌들은 “군인의 키스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미처 몰랐다.”, “파병가

족들의 키스 사진을 보며 파병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등 많은 리플을 달며 감동을 함께 나누었다.

어떤 언론인은 칼럼에서 “젊은 날 이런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워지면서 은근히 그들이 부러웠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쓰기도 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기쁨의 키스를

소크라테스는 “키스는 마음을 빼앗는 가장 힘세고 위대한 도둑”이라고 했다.

비록 이 연인들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지만, “항상 그대와 함께”라는 ‘다이만’을 키스로 맹세하며 서로의 마음을 빼앗아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화 속 가장 멋진 키스신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포스터 장면으로도 유명한 레트 버틀러(클라크 케이블)와 스칼렛 오히라(비비안 리)의 키스,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버드랑카스터와 테보라카의 키스, “카사블랑카”의 험프리 보가드와 잉글리드 버그만의 키스 장면이다.

하지만 이제 현실 속에서 가장 멋진 키스신이 되어 버린 “다이만의 키스”보다는 더 멋지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는 젊은 연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최고의 키스에 “다이만의 키스”가 손꼽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들이 귀국했을 때 아쉬움의 시간을 몇 배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쁨과 사랑의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다시 보기를 바란다. ♣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원고 : 화제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동아리 마당, 장병문예(시·소설·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 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ksh0450@af.mil

문 의

02)506-6233, 호)6233





2004년

공군군악 정기연주회

Air Force Band Annual Concert

지휘 중령 이 상 수
협연 홍 금 단
가수 장 나 라

2004년 11월 25(목) 19:30

서울 KBS  홀



공군본부